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 참여 • 협력 • 영광

發行人 金在淳
編輯人 鄭宗澤
印刷人 金映宰

發行所
서울대학교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 FAX: 703-0755

銀行지로番號 7500875
對替口座 010017-31-0621565

제 213호

1976. 4. 13 등록번호(서)라-137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5년 12월 1일

[1]



커버스토리 5면

동문부부 100쌍 초청

관악홀 명화감상회

관악춘추

여러가지 점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다. 우선 금년도에 들어서면서 본 회보가 지면쇄신을 위해 전면 가로쓰기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쇄신은 결코 우연한 것은 아니었다. 지면쇄신을 위한 의욕과 노력의 소산이다.

이러한 쇄신의 노력은 동창회 활동의 활력이 되었다. 금년에는 동창회가 새로운 변모를 상징하는 몇가지 행사를 마련했다. 「曹秀美·서울대오케스트라 협연」의 주최와 모교 미술대학교수 작품전시회의 후원등이다. 이런 행사는 동문들에 대한 봉사뿐 아니라 동창회 기금이나 모교발전기금 모금에도 크게 기여했으니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일도 모두 동창회가 구태를 벗어나서 새로

운 쇄신을 기하려는 의욕의 소산이다. 그동안 동창회는 자체기금이나 모교의 발전기금을 마련함에 있어 거의 전적으로 성금에 의존해왔다. 금년들어서 그러한 모금의 양상이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인 셈이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동창회의 활성화로 연

한 해를 마감하면서

결될 것이다. 크게 변한 것이 또 있다. 동창회관의 새 단장이다. 보수를 마친 관악홀은 노후된 의자를 3백명의 기증자의 이름이 새겨진 새 의자로 바꾸고 식당등의 부대시설이 새롭게 단장되었다. 이 모두가 새로운 발전을 위한 준비작업이다.

이러한 준비작업은 동창期別 정리작업에도 나타났다. 동창들의 유대감은 같은 과, 같은 학년간에 가장 강하다. 이러한 소속감을 총동창회로 연장시키려는 노력이 이번의 3천期の 임원현황에서도 나타난 셈이다.

우리 동창회는 금년들어 처음으로 체질개선의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교육이란 본래가 보수적인 것이며 대학의 동창회 또한 보수적이다. 그것은 實利主義經營의 합리화, 조직강화, 기획관리 등의 근대적 원리가 통하기 어렵다. 우리 동창회가 늦게나마 그런 방향으로 변하게 되었음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脫근대화를 지향하고 있는 요즘 근대화가 가져온 폐단을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榮)

95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북경지부 鄭 溶희장 (65년 商大卒·삼성전자 전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해, 그 한해를 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살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참으로 오랫동안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의 일만큼은 험사리 망각하고 물어버리지 않아야, 대학시절 모교의 품에서 꿈을 키우며, 만들어가리라고 다짐하던 상식과 교양이 지배하는 세상,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견이 존중받는 세상을 성큼 앞당길 수 있으리라 믿어져, 의미있는 한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부창립의 결실 거뒀

이곳 북경에 있는 동문들에게도 의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창회 북경지부의 창립이 그것입니다. 駐中 한국대사 黃秉泰 동문, 코트라 관장 金弘志 동문, 언론계의 愼榮樹 동문, 그리고 대우의 鄭政吉 동문, 선경의 李宗秀 동문등 관계, 언론, 기업, 학계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60여명의 동문들이 모여 지난 7월,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가졌습니다.

또 지부 창립 후에는 동창회의 鄭宗澤부회장과 모교의 李壽成총장이 북경을 방문, 지부의 창립을 축하하고 격려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세계화의 고개를 넘어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인연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물며 민족사회의 온갖 기대와 사랑을 받던 서울대로 맺어진 인연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어느 동문은 「우리는 맹수처럼 홀로 살아야한다. 서울대마저 학연에 의존해, 끼리끼리 자기들의 이익이나 추구한다면, 한국땅 어느 사람이 숨쉬고 살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편견없는 세상, 공평무사한 세상을 꿈꾸고 행동하며, 파벌의 이익보다는 민족사회의 이익을 먼저 고민하자던 우리의 학풍과 이상이, 그에게는 모이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강박관념이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끌리는 감정은 거스를 수 없나봅니다. 서로를 만나서 격의없는 동문의 정을 나누는 자리를 모두들 그렇게 바라고 기다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창회 지부의 창립이 늦기는 했지만 뜻깊은 것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가 점점 단일한 시장이 돼가고, 海內외의 구분이 없는 全方位적인 치열한 세계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중국이라는 고개를 잘 넘어야만 세계화의 고개를 넘을 수 있다는 인식과 이해에 바탕한 것이지요.

한해가 저물고 또 한해가 밝아옵니다. 在북경 동문들의 마음을 모두 모아, 동문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고 보람된 한해가 되시길 빕니다.

전주지부 柳仁相회장 (53년 醫大卒·전주안과의원장)

요즘은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신년인사로 「새해에는 기쁜 일도 많고 더욱 건강하십시오」라는 참으로 간절한 마음의 인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중국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버십시오」라는 인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먼저 쥐띠 새해를 맞는 동문들에게 「새해에는 기쁜 일도 많고, 건강하시고, 돈도 많이 버십시오」라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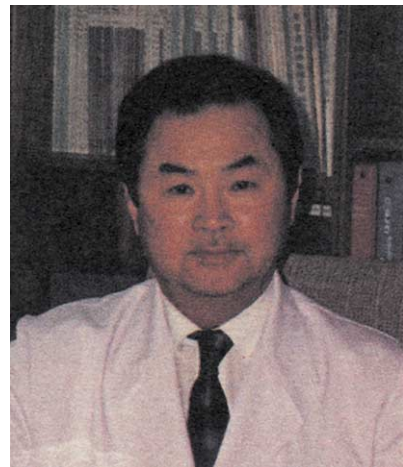
3대 사업에 주력

우리 전북지부는 새해에도 총회, 도내 고등학교출신 서울대 합격축하회, 추계 등산대회 등 3대 주요사업을 더욱 충실하게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지부에서는 그간 3대 주요사업 외에도 동문 미술전, 동문교수 음악회, 바둑모임, 골프모임 등 참으로 다양한 행사를 가져왔으며 또 1천2백여명이 넘는 도내 거주동문을 파악, 명부도 작성했습니다.

전북지부가 창립된 이후 지난 5년간의 자취를 돌이켜보면 회장의 입장에서 임원들과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信義의 바람 일으키자

莊子は 그의 친구 惠子가 죽은 뒤에 자신과 말상대가 없음을 슬퍼하고 자신과의 깊은 관계를 비유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지방의 사람이 자신의 코끝에 파리 날개같이 작은 하얀 석회를 바르고 도끼를 잘쓰는 장석이라는 사람에게 깎아내도록 시켰습니다. 이에 장석은 바람처럼 빠르게 도끼를 멋대로 휘둘러 정인의 코끝에 붙어있는 파리날개만한 석회를 흔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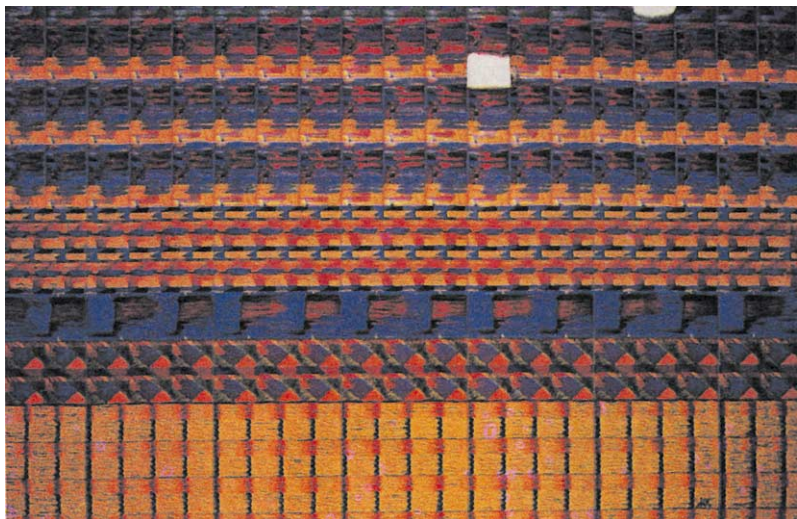
없이 깎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나 정인의 코끝에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정인은 장석이 도끼를 휘둘러 석회를 깎아내는동안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宋元君이 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장석에게 도끼 솜씨를 보여달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장석이 대답하기를 「내가 전에는 그와 같이 도끼 솜씨를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것처럼 도끼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솜씨를 믿는 태산같은 상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장자는 이와 같은 우연을 빌어 자신과 해자와의 신의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신의야말로 지난 5년간 우리 전북지부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격동하는 시기에 인간 상호간의 신의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없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동문들이 앞장서서 신의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참신한 바람을 일으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미술작품

朴 淑 姬 作



「전통과 창조」 자가드실, 자가드 직 1995, 100X160cm

〈작가약력〉

- △1962년 서울대 미대졸
- △1971년 獨逸로스터 빌헬름대 서양미술사학 박사학위
- △1970년 제1회 개인전
- △1991년 한국현대미술대전 초대출품
- △1995년 한국섬유미술 비엔날레 출품
- △1995년 제10회 개인전
- △현재 서울미술대전 운영위원, 한국섬유 미술가회 회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운영위원, 숙명여대 미대학장

〈작품평〉

섬유예술가 朴淑姬의 작품은 20여년간 지속해왔던 전통적인 직조의 방법인 고블랭(Gobelin)기법의 타피스트리에서 과감히 벗어나 의상이나 염직제품에 꼬리표처럼 달리는 회사상표

태그(Tag)를 사용한 것이다. 朴淑姬는 우연히 이 태그의 뒷면을 보고 색상과 실의 미묘한 변화에 깊이 매료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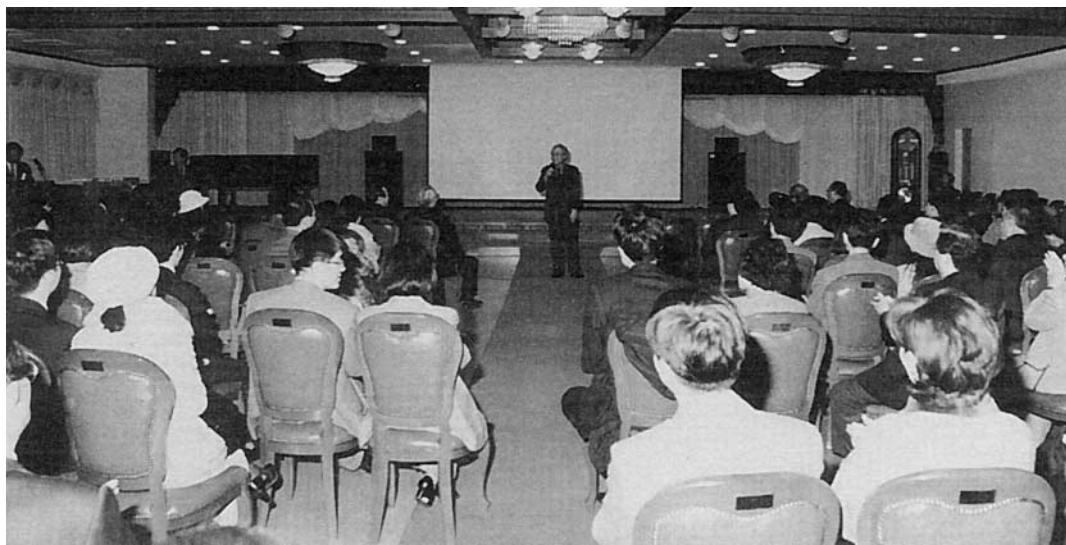
朴淑姬의 작업을 지배하는 주제의식은 주로 일상적인 삶의 사색이나 소망 혹은 사회적 현실에 대한 독백과 같은 형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기하학적 추상성을 지닌 그의 타피스트리들은 색상과 면의 대비가 빛어내는 구성적 아름다움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朴淑姬의 반복적 구조로서 「띠」작업은 색상과 질감의 미묘한 교차관계에 의한 조형적 관심이라는 점에서 그간의 작업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진다. 그의 반복적 형태는 대체로 도시풍경에 대한 정황의 대체물로 표현되고 있다. 張東光(88년 美大卒)독립전시기획가

서울대총동창회(전화 702-2233)

커버스토리

새롭게 단장된 관악홀에 모여 「카멜롯의 전설」보며 선후배 정 돈독히



영화감상에 앞서 金在淳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본회는 지난 30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동문부부 1백쌍을 초청, 영화감상회(영화명: 카멜롯의 전설)를 개최했다.

동창회관이 건립된 후 88년 1월16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창회관 관악홀을 이용, 결혼한 동문 2천5백쌍 중 90쌍의 후배 동문부부와 사회 각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동창회 임원진으로 구성된 선배동문부부 10여쌍이 새롭게 단장된 관악홀에 모여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간의 융화와 이해를 위한 「선후배 대화와 만남의 장」을 연출했다.

이날 「만남의 장」은 젊은 신세대 동문들의 동창회 참여도를 제고하고 내년에 개교 50주년을 맞이할 모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재확인시킬 수 있

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감상회에는 金在淳회장을 비롯해 鄭宗澤상임부회장, 관악회 白文基감사, 朴冠鎬이사, 李乃均광주지부 수석부회장, 李炯均·朴應七논설위원, 李世辰사무처장등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했으며 관악홀에서 결혼한 崔春欽(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趙尙策(현대정공 선임연구원), 蔡潤(변리사)부부등 80여쌍이 참석했다.

영화가 상영되기 전 金회장은 「20대 부부는 사랑으로, 30대는 정신없이, 40대는 미워하며, 50대는 할 수 없이, 60대는 고마워서, 70대는 걱정해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설명하고 「동문 모두가 서울대인으로서 남다른 책임감과 자존심을 잊지 말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는 분위기의 동창회

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영화 감상을 마친 후 경품추첨을 통해 대부분의 동문에게 상품을 전달했으며 특히 蔡潤동문은 추첨을 직접하

고 자신이 경품을 받아 가는 등 행운의 기쁨을 맛보는 자리가 이어졌다.

본회에서는 앞으로도 동문들

의 편익을 도모하고 재정확충을 위한 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분기별 영화감상회, 초청강연회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초청 간담회서 모교발전 위한 협력다짐

본회 金在淳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모교 李壽成총장, 鮮于仲皓부총장, 金完鎭대학원장은 李洪九국무총리 초청으로 지난 11월28일 총리공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崔主鎬명예회장, 鄭宗澤상임부회장, 馬景錫, 宋斗瀾, 金善弘, 申榮均, 趙南煜, 張翼龍, 崔秉烈, 朴容晟, 洪錫炫부회장, 金道昶관악회 이사, 孫京植AMP회장, 李世震사무처장등이 참석했다.

또한 각 단과대학동창회장인 李達雨(공대), 閔丙峻(사대), 李吉女(의대), 金讚淑(치대)동문과 동창회보 논설위원인 崔靑林, 朴應七, 安炳璿, 李炯均, 李成俊동문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金회장은 「동문 모두가 다가오는 21세기를 이끌어 갈 주역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모교를 위해 힘을 합하자」고 역설했다.

(雙)



뒷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洪錫炫, 金讚淑, 李成俊, 崔靑林, 朴容晟, 孫京植, 安炳璿, 李炯均, 崔秉烈, 朴應七, 李達雨, 鄭宗澤, 閔丙峻, 張翼龍, 鮮于仲皓, 宋泰鎬, 李世震, 李吉女, 趙南煜, 金道昶, 馬景錫, 崔主鎬, 金在淳, 李洪九, 李壽成, 金完鎭, 金善弘, 申榮均동문.

'95 각 단과대학(원) 동창회 활동보고

동문들의 화합과 참여 이끌어 내

95년 한 해를 마감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각 단과대학(원)동창회의 올해 활동현황을 항목별로 간략히 소개한다.

가정대학동창회

1 주요행사

▲정기총회(목련회)겸 신입
회원환영회: 2월22일 리베라호
텔 ①화보제작준비 ②개교50
주년 행사논의

▲사은회: 5월13일 「함지박」

2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지급: 목
련장학생 2명에게 1백48만1천
원 지급

▲전체야유회: 10월7일 올림
픽공원

2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지급: 11
명에게 9백56만2천원 지급

3 모교지원

▲간호사 국가고시 수험생
격려 및 나이팅게일 선서식 지
원

▲간호과학연구소 연구비 1
천만원 지원

▲졸업30, 40주년을 기념해
55년도 졸업생이 모교발전기



가정대학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간호대학동창회

1 주요행사

▲정기총회겸 신입회원환영
회: 4월6일 모교병원 본관 ①
楊銀淑회장 연임 ②학위취득축
하패 전달

▲이사회: 8월18일 모교 교
수실 ①전체야유회준비

금 3백30만원 출연

▲도서구입 및 출판비 2백만
원 지원

4 간행사업

▲동문수첩 발간: 4월6일 개
정판 발간

▲동창회보 발간: 6월 제9호,
12월 제10호 발간

공과대학동창회

1 주요행사

▲신년하례식: 1월17일 팔레
스호텔 ①엔지니어하우스건립
기금 모금방안논의

▲취임축하연: 3월21일 호암
생활관 ①鮮于仲皓부총장, 韓
松曄학장 취임축하

▲정기총회: 5월21일 교수회
의실 ①4명의 정년퇴임교수에
게 기념품 증정 ②관악산·농대
수목원 등반

2 모교지원

▲최우수졸업생 시상식 지
원: 2월24일 공대 교수회의실

①상장 및 기념품 수여

3 간행사업

▲95년도 회원명부 발간: 11
월

▲「서울공대」 발간: 통권13
호~통권17호 발간

농과대학동창회

1 주요행사

▲회장단회의: 3월30일 「한
일관」 ①데이터베이스 보완작
업보고

▲정기총회: 5월13일 대형강
의동 ①朴振煥 前농협전문대학
장을 신입회장으로 선출 ②공
로패 증정

▲당선축하연: 10월18일 교
수회관 ①3명의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축하패 전달

2 모교지원

▲60년 입학동기생이 액정
영사기(8백만원 상당) 기증

3 간행사업

▲모교와 공동으로 「농업생
명과학대학」 발간: 5월 제4호
발간

문리과대학동창회

1 장학사업

▲연 2회 장학금 지급

2 모교지원

▲연 1회 연구보조금 지급

미술대학동창회

1 주요행사

▲정기총회: 3월24일 미대
52동 307호 ①李信子덕성여대
교수를 신입회장으로 선출

▲회장단회의: 9월29일 「두
레」 ①동창회 운영방안 논의
②회보발간 준비

2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지급: 2명
에게 1백20만원 지급

3 간행사업

▲낙산회보 발간: 연4회 발간
▲「서울법대 백년사」 발간
추진중

사범대학동창회

1 주요행사

▲신년하례회: 1월12일 조선
호텔

▲정기총회: 5월27일 동양맥
주공장 회의실 ①취임축하패,
공로패 증정

▲친선바둑대회: 7월9일 사
대동창회관 회의실

▲친선낙시대회: 9월24일 「
용궁낙시대」

2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지급: 30



법과대학 개교 1백주년 기념 행사

법과대학동창회

1 주요행사

▲신년하례회: 1월18일 롯데
호텔 ①취임축하패 증정 ②근
대 법학교육 1백주년행사 준비

▲정기총회겸 「개교 1백주년
기념행사»: 5월29일 롯데호텔
①「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상」
시상

2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지급: 낙
산장학생 1백3명에게 7천9백
31만원 지급

명에게 1천2백만원 지급

3 간행사업

▲동창회보 발간

상과대학동창회

1 주요행사

▲송년회겸 정기총회: 12월
27일 상의클럽 ①임원개선 ②
뭉치자, 돕자, 빛내자상 시상

2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지급: 향
상장학생 68명에게 3천4백만
원 지급

3 모교지원



사범대학동창회 정기총회

- ▲연구보조비 지원: 3명에게 3백만원 지급
- ▲최우수졸업자 시상: 6명에게 상장 및 부상 수여
- ▲신입생 및 졸업생에게 축하기념품 증정
- 4] 간행사업
 - ▲95년도 회원명부 발간
 - ▲동창회보 「향상의 탑」 연 4회 발간

수의과대학동창회

- 1] 장학사업
 - ▲1·2학기 장학금 지급: 2명에게 1백40만원 지급

약학대학동창회

- 1] 주요행사
 - ▲정기총회: 2월24일 동창회관 관악홀 ①李禮植극동제약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 ②동창회장상 시상, 우수졸업생 표창
 - ▲당선축하연: 7월6일 ①시의원당선자 축하
 - ▲「동창의 날」 행사: 10월8일 모교 노천강당
- 2] 장학사업
 - ▲1·2학기 장학금 지급: 10명에게 5백만원 지급
- 3] 모교지원
 - ▲학장활동지원금 지원: 2백만원 지원
 - ▲「藥窓會」에서 모교발전기금 출연
- 4] 간행사업
 - ▲동창회보 발간: 11월 제35호 발간

음악대학동창회

- 1] 주요행사
 - ▲정기총회겸 신년모임: 3월1일 플라자호텔
- 2] 장학사업
 - ▲1·2학기 장학금 지급: 2명에게 2백24만1천원 지급

의과대학동창회

- 1] 주요행사
 - ▲친선바둑대회겸 합춘棋聖선발전: 2월12일 의대 제1교수회의실
 - ▲정기총회: 3월17일 하얏트호텔 ①李吉女인천중앙길병원 이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
- 2] 간행사업
 - ▲동창회소식 발간: 매월 발간

자연과학대학동창회

- 1] 주요행사
 - ▲「자연대인의 밤」행사: 6월22일 르네상스호텔

치과대학동창회

- 1] 주요행사
 - ▲정기총회: 5월26일 치대 제1강의실 ①金讚淑청아치과병원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 ②신임회원에게 동창회패 전달
 - ▲회장단회의: 6월16일 신라호텔 ①동창회기금 모금방안 논의
 - ▲「모교방문의 날」행사: 11월10일 치대 제1세미나실 ①학술강연회 ②공로패증정

2] 장학사업

- ▲1·2학기 장학금 지급: 12명에게 1천2백61만2천5백원 지급

3] 모교지원

- ▲6·9제 지원
- ▲상아축제 지원

4] 간행사업

- ▲동창회보 발간

대학원동창회

1] 주요행사

- ▲취임축하연겸 회장단회의: 3월16일 신라호텔 ①金完鎭원장 취임축하
- ▲이사회겸 정기총회: 4월7일 교수회관 ①회칙개정 ②白忠鉉법대학장, 朱鍾元교수를 신임감사로 선출

2] 장학사업

- ▲1·2학기 장학금 지급: 8명에게 8백40만원 지급

3] 간행사업

- ▲회원명부 발간: 2월, 8월 보정판 발간

경영대학원동창회

1] 주요행사

- ▲취임축하연: 3월8일 모교 경영대학장 ①崔鍾泰학장 취임축하
- ▲정기총회: 5월24일 르네상스호텔 ①李燦河회장 연임 ②감사패 증정
- ▲송년모임: 12월18일 롯데호텔 ①초청연사 강연



행정대학원동창회 정기총회



음악대학동창회 신년모임

2] 장학사업

- ▲1·2학기 장학금 지급: 2명에게 1백81만5천원 지급

3] 모교지원

- ▲우편함제작 지원: 3월8일 3백50만원 지원

4] 간행사업

- ▲회보발간: 분기별 1회 발간

보건대학원동창회

1] 주요행사

- ▲회장단회의: 10월1일 월미도 코스모스
- ▲정기총회: 12월8일 보건대학원 강당

2] 모교지원

- ▲도서구입비 지원: 2월27일 1백만원 지원
- ▲우수논문표창: 3월2일 1백만원 지원
- ▲교직원 야유회비 지원: 4월14일 3백만원 지원

신문대학원동창회

1] 주요행사

- ▲조찬간담회: 6월10일, 9월

23일 힐튼호텔

- ▲친선등반대회: 10월15일 관악산

2] 모교지원

- ▲신문학과, 신문대학원 개교20주년 기념식 지원: 5월14일

3] 간행사업

- ▲95년도 회원명부 발간

행정대학원동창회

1] 주요행사

- ▲정기총회: 5월17일 롯데호텔 ①姜敏求회장 연임

2] 장학사업

- ▲1·2학기 장학금 지급: 10명에게 9백27만9천원 지급

3] 모교지원

- ▲행정대학원 이전비 일정액 지원

4] 간행사업

- ▲소식지 발간
- ▲95년도 회원명부 발간

환경대학원동창회

1] 주요행사

- ▲이사회: 3월18일, 7월4일, 12월5일 상록회관 ①종신회비 납부운동 결의 ②동창회 운영기금 중간결산 ③회칙개정안 검토

- ▲정기총회: 5월25일 상록회관 ①회칙개정

2] 장학사업

- ▲1·2학기 장학금 지급: 10명에게 3백15만원 지급

3] 간행사업

- ▲동창회지 발간: 제28호~31호 발간

- ▲95년도 회원명부 발간

울산지부 간담회

특지장학금 1천4백50만원 출연



뒷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金忠勇, 具洵鎭, 朴章榮, 康弘燮, 金學均, 李相周, 梁僊烈, 洪南出, 張世一, 俞炳朝, 金成龍, 金石基, 柳熙春, 秋收旭, 金在淳, 朴吉用, 尹柱元, 南敬熙동문.

울산支部同窓會(회장 金石基)는 지난 4일 「만선」에서 모교발전과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회 金在淳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18명의 동문이 힘을 모아 「울산지부 장학금」으로 1천4백50만원을 출연했다.

출연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1백만원: 柳熙春(55년 商大卒·한일이화 사장), 金學均(55년 藥大卒·시민약국), 尹柱元(55년 法大卒·덕양산업 사장), 南敬熙(56년 工大卒·울산 화학 부사장), 秋收旭(57년 商



鄭信淳동문

大卒·삼주기계 사장), 李相周(60년 師大卒·울산대총장), 張世一(63년 工大卒·일성 사장), 梁僊烈(63년 法大卒·변호사), 金石基(64년 工大卒·대경기계 기술 사장), 金成龍(64년 齒大卒·치과의원장), 朴章榮(64년 工大卒·풍산금속 전무)

▲50만원: 朴吉用(54년 醫大



金周英동문

卒·동강병원 의무원장), 洪南出(61년 商大卒·경상일보 사장), 俞炳朝(62년 商大卒·삼성 정밀화학 공장장), 鄭信淳(63년 工大卒·신아정기 사장), 具洵鎭(63년 工大卒·마바상사 사장), 康弘燮(63년 工大卒·태광 산업 상무), 金周英(64년 工大卒·현대중공업 부사장)

기(과)별 소식

경영학과 29회

20년만의 모교 방문

경영학과29동기회(회장 閔亨東)는 졸업20주년 행사를 지난 10월7일 모교 경영대학에서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同會는 그동안 틈틈히 모금했던 모교발전기금을 경영대학 崔鍾泰학장에 게 전달하고, 제2경영관 건립 계획과 서울대 발전계획을 들었다.

이후 호암교수회관에서 재학 당시 학장이었던 邊衡尹명예교수를 비롯 尹桂燮교무처장등이 배석한 가운데 학창시절의 갖가지 에피소드와 추억담을 나누며 앞으로 한국기업을 이끌어갈 핵심인력으로서의 긍지와 의무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96년도 사업으로 중앙동 구캠퍼스에서의 가족친



慶一法會(가운데줄 좌로부터 다섯번째 裴載湜회장)

목대회를 갖기로 하고 졸업30주년 행사로 상대 전학과 회합등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경일법회

裴載湜회장 선출

경남중·고교 출신중 서울법대를 졸업한 동문들로 구성된 慶一法會는 지난 13일 「대려도」 홍실에서 李貴昊(코리아제록스 대표), 卞哲圭(국제상사 부회장), 李昌範(외교안보연구

원 대사), 金汝熙(헌법재판소 재판관), 安龍得(대법관)등 4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裴載湜(모교 명예교수)동문을 주축으로 모임을 가져온 同會는 이날 모임에서 회장에 裴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감사에 余尙奎(변호사)동문을 선출했다.

한편 부회장에 明浩根(쌍용투자증권 회장), 郭正出(국회의원)동문, 총무에 李世震(본회 사무처장)동문, 간사에 全元培(국회 입법조사분석실 연구관)동문, 부간사에 殷昌鎔(변호사)동문을 선임했다.

신임 裴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후배이며 제자이기도 한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여 기쁘다」고 말하고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연 1회 이상의 모임을 가져 우의가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雙)



경영학과 29동기회 모교 방문 기념촬영

광주지부 간담회

신임회원 환영회 성황



광주지부 간담회(두번째줄 좌로부터 다섯번째 본회 金在淳회장, 광주지부 吳炳文회장, 李乃均부회장)

전남·광주支部同窓會(회장 吳炳文)는 지난 7일 무등산은 천관광호텔 에델바이스 뷔페홀에서 본회 金在淳회장, 鄭宗澤상임부회장, 李世震사무처장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吳炳文회장을 비롯해 金蘭洙광주대총장, 李乃均삼화도자기 사장, 李大淳호남대총장, 許京萬전남지사등 4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吳회장은 여성동문 25명중 10여명이 참석해 기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우애와 단합을 통해 각 직장에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임은 신임회원 朴瑩洙(56년 法大卒·광주은행장), 安在祐(61년 文理大卒·광주광역시 부시장), 尹緣鉉(65년 商大卒·금호종합금융 사장) 동문의 환영회를 겸하여 진행됐으며 趙美惠(87년 音大卒) 동문의 성악이 어우러져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전주지부 간담회

다양한 행사 추진키로



11월9일 오전 이리팔봉CC에서 골프모임을 가졌다.(뒷줄 좌로부터 다섯번째 본회 金在淳회장, 일곱번째 柳仁相회장)

전북·전주支部同窓會(회장 柳仁相)는 지난 9일 전주 코아호텔 백합홀에서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회 金在淳회장, 鄭宗澤상임부회장, 李世震사무처장을 비롯해 姜相遠 前전북지사, 張明珠전북대총장, 洪性大상산학원 재단이사장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柳회장은 「지부가 창립된 후 5년동안 많은 사업

을 수행해왔으며 그 원동력은 임원진을 비롯해 모든 동문이 힘을 모은 결과」라고 말하고 「내년에도 이 지역 고교출신의 모교합격 축하회와 추계 등산대회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후반에는 太基杓(前국정교과서 이사장)동문을 비롯한 여러 동문이 흥겨운 노래로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영동지부 동창회

신임회장에 姜奎錫동문

강원·영동支部同窓會(회장 金榮洙)는 지난 1일 강릉 관광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개선을 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30여명의 동문들은 신임회장에 姜奎錫(62년 師大卒·강릉대총장)동문을 선출하고 부회장에 李喜壽(68년 商大卒·(주)경월대표), 徐完洙(64년 農大卒·관동대교수), 金福順(60년 音大

卒·관동대교수)동문을 선임했다.

또한 감사에 洪東善(61년 農大卒·경실련 강릉지부 대표)동문, 총무에 安任洙(69년 師大卒·관동대교수)동문을 선출했다.

한편 同會는 12월7일 동해관광호텔 금강홀에서 70여명의 동문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음악회를 가질 예정이다.

盧泰愚 前대통령 비리사건이후 세간에서는 이른바 「비자금 증후군」이 일어 사회적 활력이 위축되고 있는 안타까운 양상이다. 많은 국민들은 그래도 실마렸던 것이 엄청난 실체로 드러나자 「나라가 어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허탈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일부 직장인들은 근무의욕마저 잃은 채 풀이 죽어있는 상태이고 보면 가히 직장사회의 분위기를 알만도 하다. 직장인들은 「비자금 사건이후 아등바등 살면서 돈을 모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든다」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하는지 자주 허망한 생각이 든다」 「어떤 사람은 수천억을 뚝 주무르듯 하는데 그까짓 몇푼 가지고 아웅다웅 하느냐」 「몇푼 벌려고 피땀 흘릴 것이 아니라 한탕만 잘 하면…」등 허무감이나 냉소주의에 폭 젖어 있다.

기존의 권위 송두리째 흔들려

이러한 집단허무상태에 대해 사회심리학자들은 기존의 권위와 사회구성원 사이의 신뢰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바람에 전국민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상실, 허탈감과 우울증 등 집단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즈음 일부 직장에서는 「파랑새 증후군」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참인데 비자금 증후군까지 겹쳐 설상가상의 형국이 됐다.

파랑새 증후군이란 별기에 작가 메테를 링크의



朴紀正

동아일보 논설위원



亂局수습의 파랑새를 찾자

동화국 파랑새에서 연유됐다. 가난한 나무꾼의 자녀인 남매가 크리스마스 전야에 꾸 꿈속으로 엮여서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준 작품이다. 남매는 마법사 할멈으로부터 병든 딸을 위해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받고 개, 고양이, 빵, 설탕, 빛, 물등의 님프(精)를 데리고 추억의 나라와 미래의 나라등을 찾아갔으나 파랑새를 끝내 찾지 못하고 돌아온다. 꿈을 깨고보니 자기네가 기르고 있는 비둘기가 파랑새라는 것을 깨닫는다. 즉 행복은 저 너머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까이 있다는 내용이다.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가까이에서 일의 보람이나 행복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난데…」 「내 실력정도면 어딜 가도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 「내가 아니면…」등의 생각을 가지고 어렵사리 구한 직장을 떠나거나 자주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가하면 내내 그런 생각을 지우지 못하며 하루하루 지겹게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자기 실력과 능력에 따라 더 높고 넓은 세계에 도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복돋아줄 만한 일이다.

어떤 증후군에도 휩쓸리지 말아야

여기에서 탓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분수를 모르거나 과대망상에 사로 잡혀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가진 문제점을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역사를 발전시킬 수 없다.

서울대 동문들이여! 세상이 온통 뒤집어질듯 혼탁하고 주위가 아무리 어지러울지라도 우리는 어떤 증후군에도 휩쓸리지 말고 중심을 잃지 맙시다. 이 나라가 일부 파렴치하고 몰도덕적인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의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는 것만이 亂局을 수습하는 파랑새가 아닐까요. (본보 논설위원)

새해엔 이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鄭宗澤 상임부회장

해방이후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팽창에 힘입어 우리나라 대학의 양적수준은 1백70여개의 나라중 3위에 해당하지만 도서, 실험실습기자재 등 학교 시설면에서는 1백위에 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내년 개교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동창회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통해 모교의 발전에 기여, 우리나라의 명문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세계속의 명문 서울대학교로 발돋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1) 장학회의 설립 : 장학금 1구좌 5천만원, 교수연구비 1

구좌 1억원으로 하여 개별 장학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본인(출연자)명의, 출연자가 원하는 재학생 또는 교수에게 지급합니다.(예 출연자의 고향, 고교, 학과 어느 경우도 좋습니다)

나. 출연금액은 법에 따라 손비처리, 세제혜택이 됩니다.

다. 동창회보(월간 7만부)를 통하여 매년 출연자, 장학생 명단등 결산보고를 합니다.

라. 컴퓨터 관리로 영원토록 출연자 개별장학회로서 재단법인 관악회에서 일체의 관리비를 공제치 아니하고 금액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만 사용할

니다.(법대장학회인 낙산장학회가 20여년간 시행하고 있음)

2) 개교 50주년 기념 사업

가.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음악회(5월), 미술제(10월) 개최

①음악회 : 김신환, 백혜선, 황병기교수 등 출연, 서울 및 지방순회 연주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②미술제 : 동문들의 작품을 수집, 96년 10월 개관예정인 모교 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나. 모교 특별 지원 : 기존사업인 장학금, 교수연구비 지원



이외에 모교 기숙사내 문화공간 설치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서비스사업 : 동문의 편익을 도모하고 재정확충을 위하여 분기별 영화감상회, 초청강연회 등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 기존 사업의 적극 유치
가. 동창회관 5층 「관악홀 의사 실명제」 실시 : 동문 3백명에게 각 10만원씩 기증받아 고급의자를 제작, 의사 뒷부분

에 출연자의 성명과 출신대학을 명기하는 「관악홀 의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국민신용카드 보급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국민신용카드를 발급자의 부담없이 모교발전과 동창회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도 부가서비스 혜택(제휴 호텔등)을 드리고 있습니다.

5) 명예회원 영입 : 모교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비동문을 모교의 추천을 받아 명예회원으로 영입, 그 분들의 공적을 높이 기리고 모교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명예회원 대상자는 모교에 재직하고 있는 비동문 교수와 모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비동문으로 구성합니다.

(본보 편집인)

동정

수상

▲金宗西(49년) 師大卒·모교 명예교수= 10월3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천원교육상 제5회 시상식에서 학술연구부문상을 수상했다.



▲金錫營(55년) 法大卒·태양종합상회사 회장·本會理事= 10월27일 대한적십자사 창립 90주년 기념식에서 적십자 홍보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林善旭(56년) 農大卒·모교교수= 최근 모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수여하는 「제4회 상록 농업과학연구대상」을 수상했다.

▲尹炳奭(57년) 文理大卒·인하대 명예교수·本會理事= 지난 10월21일 한글회관 강당에서 「제17회 외솔상」을 수상했다.

▲尹鍾琳(57년) 文理大卒·홍익대교수·本會理事= 지난 15일 「제6회 한국전쟁문학상」 시상식에서 수필부문상을 수상했으며, 최근 충추고교를 졸업한 모교출신들의 모임인 「서울대학교충추고동문회」회장에 선임됐다.



▲崔一男(57년) 文理大卒·언론인= 지난 1일 프레스센터에서 「95년도 위암 장지연상」언론부문상을 수상했다.

▲高應麟(57년) 醫大卒·한양대교수·本會理事= 지난 17일 부산 하얏트호텔 리젠시볼룸에서 제9회 보건대상을 수상했다.

▲河永七(58년) 文理大卒·모교교수= 지난 18일 성균관대에서 고정태현 박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하은 생물학상」을 수상했다.

▲金炳翼(61년) 文理大卒·문학평론가·本會理事= 지난 10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제정한 「제6회 간행물윤리상」저작부문상을 수상했다.



▲金鍾振(64년) 工大卒·포항제철사장·本會理事= 광양제철소를 성공적으로 운영,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금속학회가 수여하는 「95 금속상」을 수상했다.

▲朴翼奎(64년) 師大卒·동신제약사장= 지난 10월16일 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에서 피부전달형 당뇨병 치료제인 「단백

및 펩타이드성 약물의 경피투여 조성물」을 출품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朴享永(65년) 保大院卒·경희대교수·本會理事= 10월17일 제44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시상식에서 생명과학부문상을 수상했다.



▲柳文一(70년) 農大卒·고려대교수= 최근 대전대학교 강당에서 제2회 송정근충학상을 수상했다.

▲曹南鉉(70년) 文理大卒·모교교수= 최근 문학사상사가 제정한 「제7회 김환태평론문학상」을 수상했다.



▲趙慶鍾(70년) 保大院卒·前국립부산검역소장·本會理事= 지난 17일 부산 하얏트호텔에서 제9회 보건대상을 수상했다.

▲金都亨(72년) 大學院卒·산업연구원일본연구센터소장= 모교 음대에 재학중인 장녀 琉璃양이 지난 13일 문예회관에서 제14회 해외파견 한국음악협회공쿨에서 첼로부문 1위로 입상했다.

이동·선임

▲李愚勇(55년) 農大卒= 최근 제2대 충청남도 교육위원에 선임됐다.



▲林慶春(52년) 工大入·前삼성그룹일본본부장= 최근 삼성자동차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전보.

▲奇秉泰(57년) 工大卒·한국경제전략연구원감사= 최근 대한공조(주)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다.

▲鮮于賢範(57년) 工大卒·前대림LNG발전사업추진단사장= 지난 10일 대림 엔지니어링 사장에 선임됐다.



▲盧在植(57년) 文理大卒·前환경기술개발원장·本會理事= 최근 중국 북경에서 열린 국제지구권생물계획 제4차 과학자문사회에서 溫帶동아시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宋世昌(57년) 商大卒·前교보문고회장·本會理事= 최근 나산종합건설 대표이사겸 나산그룹 부회장에 취임했다.



▲安明弼(59년) 法大卒·前경남지사·本會理事= 지난 10월30일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 및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白雲基(60년) 文理大卒·서강대교수= 최근 대한화학회 제31대 회장에 선임됐다.

▲文元柱(60년) 法大卒·제일학원장= 최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취임했다.

▲邊勝鳳(61년) 工大卒·한국전기연구소장·本會理事= 최근 개최된 대한전기학회 95년도 직선 평의원회에서 차기회장에 선임됐다.

▲李元宅(61년) 法大卒·중소기업협동중앙회상근부회장·本會理事= 최근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에 선임됐다.



▲車有培(61년) 行大院卒·대덕산업대표·本會理事= 10월18일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凰堂 遞友獎學會」의 공익법인설립 기념회를 갖고 전국우편배달에 종사하는 장기근속자 자녀의 대학입학지원을 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 이사장에 취임.

▲羅正雄(63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교수·本會理事= 최근 열린 국제전기·전자학회(IEEE)에서 「마이크로파 이론 및 기술 소사이어티」의 집행위원에 선임됐다.

▲李純鎔(63년) 醫大卒·인제대대학원장·本會理事= 지난 10월28일 열린 제4차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서 제2대 회장에 선출됐으며 지난 3일 광주에서 열린 제38차 대한혈액학회에서 차기회장에 선임됐다.

▲徐健一(64년) 文理大卒·前서울신문편집국장= 최근 중소기업연구원 상임고문에 선임됐다.

▲郭泳九(65년) 農大卒·前아식스스포츠대표·本會理事= 최근 제일화재 전무에 취임했다.



▲李弼坤(65년) 商大卒·前삼성자동차회장·本會理事= 최근 삼성물산 대표이사 총괄부회장으로 전보.

▲尹興烈(65년) 齒大卒·前대한치과의사협회장·本會理事= 최근 홍콩에서 열린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에서 이사에 재선임됐다.



▲尹鍾龍(66년) 工大卒·前삼성전관사장·本會理事= 최근 삼성그룹 일본 본사 대표이사 사장으로 전보.



▲白豪翼(66년) 商大卒·동부생명전무= 최근 동부산업 사업본부 부사장에 선임됐다.

▲申相斗(66년) 司大院卒·前창원지검검사장·本會理事= 최근 법무부 감사위원에 임명됐다.

▲鄭光(66년) 文理大卒·고려대교수= 최근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장에 취임했다.



▲南正祐(66년) 商大卒·前삼성카드사장·本會理事= 최근 삼성물산 건설부문 상담역으로 전보.



▲李亨道(67년) 工大卒·前삼성전기부사장·本會理事= 최근 삼성전기 사장으로 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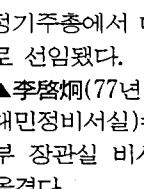
▲李寅源(70년) 新大院卒·前문화일보부사장= 11월13일자로 문화일보사 대표이사 사장 직무대행에 선임됐다.

▲尹汝憲(71년) 商大卒·前삼본물산대표= 최근 동양생명 기획담당상무에 선임됐다.



▲崔鎬浩(72년) 音大卒·인천시향부지휘자= 최근 불가리아의 슈멘스테이트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로 위촉됐다.

▲趙王夏(75년) 法大卒·동양투자금융부사장·本會理事= 최근 정기주총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李啓炯(77년) 師大卒·前청와대민정비서실= 최근 통상산업부 장관실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沈良燮(87년) 人文大卒·자민련부대변인= 지난 10월11일 자민련의 경기도 군포시 지구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趙炳世(88년) 行大院卒·국무총리실정무비서관= 10월29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동문회 정총에서 제14대 회장에 선임됐다.

▲申成燮(89년) 環大院卒·대검찰청과학수사운영과장= 지난 10월27일 한국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협회 정총에서 제13대 회장에 선임됐다.



▲李大源(45년) 法大卒·예술원 회장= 10월25일부터 11월8일까지 종로구 소재 갤러리 현대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李潤子(46년) 師大卒·전북주부교실중앙회장=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민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1층에서 우리 농산

물 전시회 및 직거래장을 열었다.

▲鄭世華(51년) 法大卒·한국여성개발원장=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에서 열렸던 제28차 유네스코총회에 참가.

▲俞鵬老(53년) 大學院卒·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 지난 10월18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세계화시대의 광고심의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玄永源(54년) 文理大卒·현대상선회장·本會理事= 10월26일 원광대에서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宋庸植(55년) 法大卒·本會理事= 지난 16일 하얏트호텔 로터스룸에서 吳明건설교 통부장관을 초청, 「건설·교



통시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金善弘(56년) 工大卒·기안그룹회장·本會副會長= 지난 10월15일 호텔신라에서 표준협회장 자격으로 최고경영자 조찬회를 가졌다.



▲安明柱(56년) 工大卒·한국유통학회·本會理事= 지난 10월24일부터 28일까지 모교 호암생활관에서 모교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회 한·미 트라이블로지 심포지엄을 개최.



▲李宗勳(57년) 工大卒·한국전력공사사장·本會理事= 최근 충북 수안보 한전생활연구소에서 노사화합다짐대회를 가졌다.



▲李徽永(57년) 法大卒·LG화학고문·本會理事= 최근 세계초우량기업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우수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아래 「세계인재개발원」을 설립하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행사·출간

▲李潤子(46년) 師大卒·전북주부교실중앙회장=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민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1층에서 우리 농산



▲林錫珍(56년 文理大卒·한국해협학회장·本會理事)= 지난 8일 명지대 회의실에서 최양석 박사를 초청, 「그리스철학에서 일자의 전일성」이라는 제목의 발표회를 개최.

▲李會昌(57년 法大卒·前국무총리·本會理事)= 지난 2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회갑기념논문집 「법과 정의」봉정식을 가졌다.

▲鄭東華(57년 師大卒·인천교대총장·本會理事)= 지난 29일 장학기금마련을 위한 음악회를 인천종합문화예술회에서 개최했다.

▲李炳浙(58년 法大卒·한국사료협회장·本會理事)= 지난 10월30일부터 10여일간 미주 사료 생산현황과 가격동향 등 실태파악을 위해 콘벨트지역을 시찰했다.

▲黃昌基(58년 商大卒·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本會理事)= 지난 10월 23일 영등포구 연구원에서 「21세기 대비 경제운용의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金長淑(58년 藥大卒·정무2장관·本會理事)= 11월2일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공동의장에서 「여성개발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

▲禹黃穆(59년 商大卒·조흥은행장·本會理事)= 최근 임직원과 함께 모은 의류 2천여점과 성금 1백만원을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선명회측에 전달했다.

▲朴世直(60년 文理大卒·국제환경노동문헌원이사장·本會理事)= 지난 10월16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지구환경기금위원회를 발족하고 기금마련행사로 LG카드와 「그린 글로벌 카드」발매 조인식을 가졌다.

▲李仁圭(60년 文理大卒·모교교수·本會理事)=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올림픽파크텔에서 자연보호담당공무원 및 자연학습원 관계자를 상대로 제17회 자연보호세미나를 개최.

▲李勇成(60년 商大卒·前은행감독원장·本會理事)= 지난 10월14일 미스탤퍼드大 후버연구소로 연수를 떠났다.

李동문은 내년 5월까지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미국에 머물면서 국제금융학을 연구할 계획.

▲劉永珠(61년 家政大卒·대한가정학회장·本會理事)= 지난 10월28일 고려대 경영관강당에서 「교육개혁과 가정학」이란 주제로 제48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愼鏞廈(61년 文理大卒·한국사회학회장·本會理事)= 지난 10월21일 모교 사회과학대 제1세미나실에서 제71회 연구발표회를 가졌다.

▲李鍾徹(61년 文理大卒·한림대교수)= 지난 10월20일 모교 교수회관에서 동료교수들과 제자로부터 회갑기념 논문집을 봉정받았다.

▲朴鉉炳(61년 法大卒·한국공법학회장·本會理事)= 지난 11월 11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독일 아데나워 재단 후원으로 「헌법소송과 일반소송의 관계」라는 주제로 한국국제학술회의를 개최.

▲尹世榮(61년 法大卒·서울방송문화재단이사장·本會副會長)= 최근 하버드대학의 한국정치학교수직 설치지원을 위해 매년 30만달러씩 5년간 1백50만달러를 이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다.

▲金容吉(61년 師大卒·경기대교육대학원장·本會理事)= 지난 18일 올림픽파크텔에서 후학들로부터 회갑기념논문집을 봉정받았다.

▲郭滿燮(62년 文理大卒·산림청장·本會理事)= 지난 4일 남산에서 남산소나무복원식수행사를 열고 「화합과 번영의 숲」기념비 제막식을 가졌다.

▲柳世熙(62년 文理大卒·한양대 중소연구소장·本會理事)= 지난 10월 17, 18일 양일간 조선호텔 라일락룸에서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와 공동으로 「한·러관계와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제1차 한·러포럼을 개최했다.

▲崔昌浩(62년 法大卒·한국지방자치학회명예회장)= 지난 10월1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자들로 부터 회갑기념논문집 「지방자치와 행정」을 봉정받았다.

▲金日基(62년 師大卒·대한지리학회장·本會理事)= 지난 10월 13, 14일 양일간 모교 문화관 소강당에서 광복50주년 및 대한지리학회 창립5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발표대회를 가졌다.

▲洪性雄(62년 商大卒·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本會理事)= 지난 10월 19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건설기능인력의 고용안정과 노동관계

도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李正仁(63년 工大卒·한국자원공학회장·本會理事)= 지난 7일 모교 박물관 강당에서 「지반사고 예방을 위한 물리탐사의 활용」이란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가졌다.

▲金亨徹(63년 法大卒·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 지난 10월 24일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와 공동으로 한·독 환경기술세미나를 개최.

▲金信一(63년 師大卒·모교교수)= 지난 10월20일 동송동 흥사단 강당에서 「국가의 교육의 전개와 극복과제」를 주제로 특강.

▲李鍾律(64년 文理大卒·재경남원향우회회장·本會理事)= 지난 10월 22일 서울교대 운동장에서 「재경 남원의 날」 행사를 가졌다.

▲吉熙星(65년 文理大卒·한국종교학회장)= 지난 4일 이화여대 인문관에서 「한국종교사 어떻게 쓸 것인가」를 주제로 추계학술발표회를 가졌다.

▲鄭正佑(65년 法大卒·한국행정학회장·本會理事)= 10월24일부터 26일까지 타워호텔에서 「변화하는 행정과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의 모색」이란 주제로 국제행정정책학회 연례총회를 개최.

▲金東建(65년 商大卒·한국재정학회장·모교교수)= 지난 10월 20, 21일 양일간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재정 5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광복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金泰淵(65년 商大卒·한국관광공사사장)= 지난 10월17일 일본 나고야 캐슬호텔에서 나고야지사 개소식을 가졌다.

▲吳世鍾(65년 商大卒·장은신용카드사장)= 지난 10월 14, 15일 양일간 교육문화회관에서 대리급이상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었다.

▲崔昌潤(66년 文理大卒·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本會理事)= 지난 6일 모교 교수회관에서 「제2회 중국교육자 대 상한국학 워크숍」 참가자를 위한 환송만찬을 열었다.

▲朱良子(66년 大學院卒·국회여성정책연구포럼회장·本會理事)= 10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정 폭력의

실상과 대책」을 주제로 연구토론회를 개최했다.

▲朴定樹(66년 商大卒·한국환경경제학회장)= 지난 24일 올림픽 파크텔에서 「기후변화협약과 정책대응」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楊秀吉(67년 工大卒·교통개발연구원장·本會理事)= 지난 10월20일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국가간교통망 구축계획안」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安淸市(67년 文理大卒·한국동남아학회장·本會理事)= 최근 싱가포르 동남아학회와 함께 제2차 「韓·아세안국제학술회의」를 개최.

▲趙洪來(67년 文理大卒·농어촌진흥공사사장)= 지난 13일 공사의회의실에서 간척사업등 현장경험과 이론을 담은 책 「한국의 간척」출판기념회를 가졌다.

▲柳豪政(67년 法大卒·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장)= 지난 2일 영국 왕립산업디자인대학에서 앤터니 존스학장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鄭聖昌(67년 齒大卒·모교교수)= 지난 10월 14, 15일 양일간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6차 아시아 두개하악장애학회 서울학술대회를 개최했다.

▲鄭東俊(67년 行大院卒·한국인사관리자협회장)= 지난 10월15일 「인적자원도서관」을 개관했다. (전화 598-7575)

▲李冕雨(68년 工大卒·모교교수·本會理事)= 최근 「신사고이론 20」(삶과 꿈)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金文煥(68년 文理大卒·모교교수·本會理事)= 지난 10월19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문화경제학의 방법론적 이해」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鄭鎭一(68년 文理大卒·한국정보문화센터사무총장)= 10월 24일 서강대 다산관에서 언론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정보사회의 도전과 언론인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

▲孫菊任(68년 音大卒·숙명여대교수)=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체크 브르노 국

립교향악단 내한공연」에서 피아노 협연을 했다.

▲金泰東(69년 商大卒·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정책연구원장)= 지난 10월 17, 18일 양일간 경실련 강당에서 「95년 정부세법 개정안」과 「OECD 가입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蔣根植(70년 工大卒·KAI-ST교수·本會理事)=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대전 대학로 CC갤러리에서 89년부터 6년간 촬영한 사진들을 모아 「따뜻한 눈」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가졌다.

▲黃琪源(70년 工大卒·모교교수)= 최근 「책같은 도시, 도시같은 책」(열화당刊)이라는 제목의 수상집을 펴냈다.

▲金潤澤(70년 經大院卒·양친 장학회이사장·本會理事)= 지난 26일 롯데호텔에서 양친 장학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겸한 고회연을 갖고 저서 「陽泉自傳」과 「양친장학회 10주년 기념지」를 배포했다.

▲崔 洸(70년 商大卒·한국조세연구원장)= 10월20일 하얏트호텔 플라자에서 열린 「바른 경제동인회」 월례조찬회에 참석, 「한국세제-기본인식과 정책방향」이란 제목으로 강연했다.

▲朴東明(70년 音大卒·지휘자)= 지난 1일 뉴욕의 링컨센터 에이버리 피셔홀에서 아메리칸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공연했다.

▲朴弘植(71년 經大院卒·산업기술정보원장)= 지난 10월19일 롯데호텔에서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21세기를 향한 한국기업의 경영이념 정립방향」을 주제로 강연.

▲辛鍾午(74년 師大卒·한국과학기자클럽회장)= 지난 10월 19일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클럽사무실 헌관식 및 개소식을 갖고 「21세기를 지향한 과학기술과 언론의 접목」을 주제로 기념포럼을 개최했다.

▲文大源(75년 商大卒·코리아제록스부회장·本會理事)= 지난 10월19일부터 25일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제록스그룹 및 일본 후지 제록스를 방문했다.

▲鄭夢準(75년 商大卒·국회의원)= 최근 「일본의 정부와 기업관계」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全美映(78년 音大卒·피아니스트)= 지난 20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부군인 이동우 KBS교향악단 수석

첼리스트와 함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이중주의 밤」을 가졌다.

▲李大雨(77년 環大院卒·동일 기술공사전무)=국토개발도시 계획·조경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난달 문화재관리국에서 시행한 문화재보수조경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朴文淑(81년 音大卒·성악가)=지난 2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독창회를 가졌다.

▲李峻炯(81년 大學院卒·한국 국민윤리학회장)=11월6일부터 8일까지 중국 남경에서 중국윤리학회와 공동으로 「유가 윤리와 현대사회」라는 주제로 「'95한·중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최했다.

▲奇珠熙(86년 音大卒·바이올리니스트)=지난 9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가졌다.



▲趙源環(88년 音大卒·바이올리니스트)=지난 25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모교 음대동창회 후원으로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를 가졌다.



(정리=金志妍기자)

「관악홀 의자 실명제」에 뜨거운 호응



1995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동창회관 5층 관악홀 시설보수를 실시하였으나 기존의 3백석 의자가 노후되어 교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회에서는 동문 3백명에게서 각 10만원씩을 기증받아 고급의자를 제작, 의자 뒷부분에 출연자의 성명과 출신대학을 명기하는 「관악홀 의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출연자 명단 (가나다순)

△金榮宰대덕전자(주)사장 △金貞植대덕전자(주)회장 △金哲洙서울대교수 △薛昌煥구포치과의원장 △崔靑林조선일보 편집국장

도움주실 동문은 온라인 입금후 전화연락 바랍니다. 온라인: 조흥은행 397-03-002804(김재순) 전화: 702-2233.



대전고법 李玲愛부장판사

「올해의 여성賞」 수상

“협력하는 서울대인 되기를...”

홍일점이자 수석으로 사시 13회 합격, 최초 여성지법부장판사, 최초 여성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낸 바 있는 李玲愛(71년 법대졸)동문이 최근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다.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고등법원판사로 취임한데 이어 「'95 올해의 여성賞」을 수상한 것이다.

李동문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과 협력하면서 여성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러한 영예를 얻게 된 이유가 있다면?

「73년 판사발령을 받은 후, 23년간 무사히 근무할 수 있었다는 점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법관을 천직으로 알고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일한 것이 여러분께서 인정해주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지방근무로 인해 직장일과 가정일을 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텐데, 생활신조와 함께 그 비결은 무엇인지.

「철저하게 직장 위주로 살아왔습니다. 지극히 다행한 일은 남편이나 아이들이 저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전에 내려와 살아야하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생활한다는 것이 가장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다른 일을 제치고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생활신조라고 특별히 내세울 것은 없지만, 모든일에 성실한

것이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특히 주력해온 일이 있다면.

「영미법을 우리나라 실정법 해석에 접목시키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졌지요.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실정법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바탕으로 이 법의 내용에 흡수시킬 수 있는 영미법적 사고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가족소개와 함께 취미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2남3녀를 두었고 남편인 金贊鎭변호사도 8년 선배인 법대 17회입니다. 현재 민자당 서초구갑지구당 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워낙 바쁘게 살다보니 특별히 취미생활을 할 형편이 못됩니다만, 주말이면 가까운 산에 나들이를 갑니다. 가족들과 오붓한 정을 나눌수 있는 기회라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까지는 업무가 과다해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소비자보호법의 연구나 여성지휘향



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와 여성문제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좀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모교가 나에게 심어준 자부심이 지금까지 어려운 길을 걸어오는데 버팀목이 됐습니다. 동문들 상호간에 서로 잘 되도록 협력하는 서울대인의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李동문은 일에서는 프로지만 「국민학교 1학년인 막내아들에겐 항상 미안한 엄마」라며 웃었다. (志)



“총독부는 예술품이 아니다”

—李元亨 명예교수



「서울—解體, 台北—文化財 舊總督府 두가지의 運命」

위의 제목은 일본의 朝日新聞이 전후 50주년을 맞는 지난 8월 14일자로 게재한 사회부 기자의 기명기사로서 조선과 대만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권부이던 옛 총독부 건물의 미래에 대한 보도 기사의 제목이다.

浜岸和洋이라는 기자는 서울에서는 독립기념일인 8월15일부터 舊 총독부 건물에 대한 해체가 시작되고 台北의 그것은 가까운 장래에 국보급문화재로 지정되리라는 전망을 전하고 있다. 그는『저주스러운 과거의 상징을 철

거하면 새로운 한·일관계의 창조에 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국립중앙박물관 鄭良謨관장의 말을 전하는 한편,『건물을 철거해도 역사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이전하여 보존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음도

아울러 전하고 있다.

한편 台北의 舊대만총독부는 台北市가 국보급인「第一級古蹟」으로 정하고 정부에 이미 그 지정을 신청한 사실을 전하면서 대만정부내 政部の 한 관료인 種福山이라는 사람이『이 건물은 예술입니다. 예술에는 국경이 없지요』라고 명쾌하게 대답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보도 태도이다.「하나는 철거되고 하나는 문화재로 지정되고」라는 대조적인 제목을 제시한 진의도 문제려니와, 대만관료의 역사식도 문제이다. 총독부 건물은 예술품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를 위한 權府建物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총독부 건물은 당시 넓은 공터에 지어진 대만총독부 건물과는 달리, 오랜 역사를 자랑하던 조선왕궁의 正門과 궁궐을 헐고 서울의 鎮山을 가리는 위치에 건설하여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고 역사에 모독을 가하기 위한 악의 어린 의도에서 건설된 것이었으므로 당연히 철거될 수밖에 없는 당연성을 지닌 무력감정의 상징건물이었기 때문이다.

식민지 지배의 施惠論을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의 시간성을 두고 계속 망발하는 일본 정권 요인들의 계산된 장난에 더 이상 우롱당할 수는 없다. 단호히 대처해 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고
역사에
모독을 가하기
위한 악의 어린
의도에서 건설된
것이었으므로...

“우리 부부는 吉緣의 선후배”

—具玉卿(68년 齒大卒)치과의원장



94년도 IADR학회에서(좌로부터 부군 金英洙(61년 齒大卒) 모교교수, 세번째 필자)

우여곡절 끝에 큰절 올리면서『인사드립니다. 치대 보철과 김영수입니다』『오, 그래 잘 왔네. 나하고 동문이군. 자 앉게』

벌써 25년전 필자의 친정아버님(具本明)과 남편의 첫 대화이다.『그래 몇 회인가. 난 문리대 철학과 2회고 선친께서는 지금의 의대 1회이시네. 살아계셨으면 무척 좋아하셨을텐데... 여보, 마누라 술상 좀 봐오시오』 이크, 첫눈에 맘에 드셨나보다. 아버님은 기분이 좋으시면 꼭 안주상을 청하신다.

『아버지 왜 술상까지요. 그냥 차한잔 들고 보내시지요』『왜 맘에 안드니? 사람이 아주 성실하고 목표가 뚜렷하더구나』『피, 시시하게』『뭐가? 우리 공주님(아버님은 필자를 늘 이렇게 부르셨다) 성에 안차나보군. 백마탄 멋진 기사는 아니더구나. 그럼 교수님 영화배우를 어디서 구하나. 신문광고에 내나 어찌나』『몰라요, 아버지!』

나의 남편은 화려하지도 얼렁뚱땅(?)할 줄도 모른다. 그래서 늘 내 맘 한구석은 빈듯 하면서 살아왔다. 긴 세월 나의 쥐꼬리만한 자존심으로 한마디도 지지않으려고 애썼지만 꾸준하고 성실하게 학문에 연구, 몰두하는데는 당할 수가 없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로지 교수로서 연구하고 노력한다. 젊은 시절에는 그게 싫고, 싫었지만 어찌랴. 할 수

없이 난 오기로 개업의로서 내일에 충실하고 교수가 천직인 남편 모시면서(?) 평범하게 살아왔다. 언제부터인가 내 맘속에서부터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나오니까 모든 생활이 순조롭고 평화롭게 진행됐다.

5년전쯤인가, 무척 어렵고 급한 환자가 있었다. Model(환자 구강상태를 그대로 찍어낸 석고모형)을 갖고 밤 11시에 귀가한 남편을 붙들고 물었더니 웬일인지 자세하게 Design까지해서 설명을 해준다. 그대로 시술해서 시간맞춰 끝냈더니, 그 환자는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서 필자가 제일가는 名醫란다. 동문교수 선배님의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작년 봄 시애틀에서 IADR학회에 참석했다. 남편이 회장이었기 때문에 난 Hostesses겸 치과의사로 같이 참석했다. 남편은 강연회, 회의, 파티등 무척 바쁜 일정속에서도 나를 위해 어느날 오후 시내관광을 했다. 노을이 지는 해변가 식당에 실로 오랜만에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게 됐다. 그런데 가슴이 찡아려왔다. 언제 저렇게 흰머리가 많이 생겼나! 순간 교수님(난 자주 이렇게 부른다) 눈빛도 안쓰러움이 가득하다. 옛날의 학생이 아닌 중년 여인이 앞에 앉아 있으니... 우리는 말없이 바닷가만 응시하고 있었다. 수많은 세월의 편린이 파도에 씻겨내려 가는 것을 보면서...화려함도 세련됨도 없는 동문 선배 남편이지만 우리 부부는 이제 많이 동화되어 서로 편안하고 또 존경심과 자랑스러움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가면서 살아간다.

다가오는 새해에 식구들이 모이면『누님, 매형 뵙기 좋습니다. 건강하십시오』친정 큰 동생(具翰謨)이 공대 전기공학과(70년卒)를 나온 동문이고, 여동생 남편(趙正浩)도 모교 공대(71년卒)를 나왔다. 오랜만에 동문 선후배가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겠지. 같은 길을 걷는 동문이자 동반자로 네모지게 각진 사랑을 동글고 둥근 사랑으로 바꾸면서, 이제 불같은 사랑은 아니지만 아련히 가슴속 깊이 아픈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리라.

한글가면

태극권이 비법

활력과 상쾌함 맛보

—李寅誠(53년 醫大卒)前건국대학장



건강은 자기자신이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다. 나 자신이 잘 지키지는 못하지만 건강을 위한 공통분모를 대라면 다음 세가지가 들겠다.

- 1)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늦어도 저녁 10시에 취침, 아침 6시에 일어난다.
- 2) 과음, 과식을 피하고 육식을 적게 한다.
- 3) 마음을 편안히 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대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에 더하여 나의 건강법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병같은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게 하는 비법—태극권이다.

태극권은 애초에 호신무술의 하나로 외부공격에 대한 민감성과 직관적 통찰력을 키우고, 유연한 동작과 임기응변의 자세로 자기 힘을 별로 들이지 않고도 많은 적을 대처할 수 있게끔 창안된 것이었다. 유파에 따라 투로(型)에 조금씩 다른 점도 있으나, 원과 곡선을 기초로 한 물의 흐름과도 같이 이어지는 움직임

임은 공통된 특징이다. 그 중 楊式은 내기공의 으뜸으로 이를 연공하면 몸의 평형감각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자율신경의 조화와 함께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우세해지고 이에 이어지는 간뇌의 활성화로 「몸 안의 장기에 활력과 상쾌함」을 경험하게 된다.

태극권 60투로(型)를 끝내는데 약 12분이 소요된다. 다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개인차가 있으나, 매일 열심히 1~2시간 연습을 하면 약 2개월이면 숙달된다. 가장 심오한 경지, 비법을 얻으려면 지금까지의 인간적 움직임을 부정하고 새로운 按에 상응한 形을 배워 그것을 자신의 움직임으로 창출하며 착실히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날 자동적으로 一氣가 이루어진다.

태극권의 진수는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궁극은 내적평화의 경지에 들어 조화에 차있는 자유의식 세계에 도달하는 것, 대립하는 세계를 넘어 먼저 자기가 「無」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융화를 얻어 무한히 상대와 일체가 된다. 내가 여기서서 진실로 「無」가 되면 「大武」라고 할 수 있는 우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인 동시에 또 그의 마음이다. 따라서 그가 공격을 가하려고 하는 것은 천의心を 공격, 또 그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그는 쓰러지게 된다.

태극권 투로에서 승(昇)이란 의(意)에 의해 올려지는 것이 아니고, 기식(氣息)이 뿌리에 귀(歸)한 후 자연히 위로 싹터 올라가는 것이다. 개(開)란 것도 의(意)에 의해 밖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 내기충패(內氣充沛)상황에서 자연히 밖으로 충영(充盈)됨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뇌와 근육을 긴장에서 풀고(relax) 몸 안에 음·양의 균형을 기본으로 하여 막강한 경력(勁力)과 최고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다.

동문업소
한방

산정호수 유스타운
(전화: 974-8664)

가족단위 극기훈련 적격

사람들은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 심약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정서가 메달랐다고 걱정한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부모의 과잉보호, 성적제일주의를 꼽고 있는데 단체활동이나 봉사활동 등 다양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직장이나 가족단위로 하는 레포츠가 유행이어서 다양한 종류의 동호모임까지 생기고 있는데 그 운동량이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맞추어 대학생이나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을 극기훈련으로 대신하는 곳이 점차 늘고 있다.

李鍾郁(68년 師大卒)이사장과 韓都淵(53년 師大卒)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이곳 「산정호수유스타운」은 20여년간 쌓은 노하우와 교육일선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국민학생부터 대학생, 직장인을 비롯한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떠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야외 교육장이다.

경기도 포천군 산정호수에 접해있는 이곳은 명성산, 관음산등의 산과 계곡에 둘러싸여 있어 삼림욕도 가능하며, 60여만평의 대지에 청소년호텔과 야영장, 텐트형 방가로가 자리잡고 있어 4천여명을 함께 수용할 수 있다. 공동 취사시설은 물론 샤워시설, 식당 및 강당까지 완비돼 있으며 특히 강의실과 세미나실, 야외공연장, 수영장, 캠프장이 따로 있



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극기훈련에 필요한 19개의 행군코스과 장비가 마련돼 있고 예절교육을 위한 생활관, 직업교육을 위한 기능훈련시설도 완비돼 있다.

이곳의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첫째, 극기훈련으로 암벽등반, 담력훈련, 유격훈련, 좌선, 요가 및 단전호흡 강좌 등이 있고 밤에 이루어지는 「침묵의 행군」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둘째, 노작훈련시간은 환경미화훈련, 채소밭 일구기, 감매기등을 하면서 자연과 하나되고 땀흘리는 기쁨을 느껴보는 시간이고 셋째, 예절교육은 바르게 절하는 법, 손님맞는 법, 친척간의 계보와 호칭, 제사의 절차, 다도등으로 전통예절과 현대예절을 함께 배울 수 있다. 그 외에도 性과 흡연에 관한 시청각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상봉터미널이나 수원전철역에서 출발해 의정부 포천에 오면 운전행 버스가 수시 운행하며 이곳에서 산정호수행 버스를 타면 쉽게 갈 수 있다. (志)





이거회

“그래 바로 이거야!”에서 이름지어 60년 전후, 미대입학 동기생들의 모임

「이거회」는 60년을 전후로 미대에 입학한 동기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모임이다. 역사는 10여년이 훨씬 넘었지만 이런 기발한 이름을 갖게 된지는 3, 4년밖에 안됐다. 문제의 해결방법이나 잃었던 물건을 찾았을 때, 서로의 의견이 일치했을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그래 바로 이거야!」. 이 말이 주는 쾌감과 즐거움이 좋고 의견일치가 잘 되는 同會의 특성을 들어 孫彌榮동문이 모임명칭으로 정했다.

매주 가족동반 산행

대학시절을 함께 보냈고 매주 가족을 동반하고 등산을 다니다 보니 이들은 집안의 경조사를 챙기는 것은 물론 일에 관한 정보, 사회문제나 세세한 가정사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저녁에 모여 술 한잔 걸치면서 이런 저런 세상사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다른 모임에서는 느낄 수 없는 사심없는 마음과 손해나 이익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칙을 따로 만들거나 임원을 뽑아 회원들을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때가 되면 서로 알아서 모이고 같이 놀아가는 것이 흐뭇하다는 이들. 함께 다니는 여행이나 등산중에 작업의 모티브



지리산 천왕봉 등정을 마치고.

를 얻는 경우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3, 4년전 학생때를 재현해보자며 연건동에서 파고다공원을 지나 무교동 낙지골목을 거쳐 명동 맥주집까지 밤늦도록 돌아봤는데 분위기나 맛은 그 시절을 따를 수 없지만 추억과 낭만을 되새기기에는 충분했다고. 가난한 학생이었던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인쇄소 등지를 헤매다니던

기억을 대부분 갖고 있는데 그래도 경제적인 전망을 따지기보다 그저 그림이 좋아 택한 미술학도의 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인지 회원들 대부분이 미술학계에서 외길을 걷고 있거나 전공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다. 韓道龍동문은 62세로 최고고령이자

디자인계의 1세대로 회원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있다. 홍익대 미대학장, 대학원장을 역임했고 독립기념관의 「겨레의 탑」, 대전 엑스포의 상징물인 「한빛탑」을 설계한 장본인이다. 3, 4년간 변함없이 매주 북한산을 등반해 곧 2백회를 돌파할 예정인데 아들과 딸도 모교 공대와 가정대를 나온 서울대인이다.

엑스포 한빛탑 설계

安鍾文동문은 인덕전문대 초창기에 공업디자인과 교수로 재직하다 홍익대로 부임한지 벌써 20여년이 됐는데 계획성이 있고 책임감이 강해 산행때 힘들어 뒤흔친 회원들을 잘 보살펴준다고. 전문광고 제작사 「인코드」대표인 張正學동문은 군대를 마치고 편입을 하려다 후배가 등록금이 없어 애를 태우자 자신의 등록금을 선뜻 내주고 한 학기를 미룬 의리파로 지금도 후배를 다독거리고 흠어져있는 미술계 인사들을 한데 묶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인테리어 전문업체인 「오픈 하우스」를 경영하고 있는 孫彌榮동문은 등산 경력도 오래되고 이곳 저곳을 많이 다녀서 여행가이드겸 등산대장을 주로 맡고 있고 유일하게 타대학 출신으로서 일 관계로 만나다 친해진 두산그룹 이사 鄭 檀동문은 상대출신인만큼 同會의 총무역할을 기꺼이 맡고 있다.

「이거회」는 앞으로 회원들의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가져볼 생각이다. 대부분 글썽씨도 있어서 시화전도 고려하고 있다. 기금이 마련되면 인도나 스위스 등으로 스케치여행을 겸한 해외여행도 계획하고 있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권하는 이들도 작품활동에 있어서만은 영원한 경쟁자이다. (志)

청사테

마음은 ③년인 ③회학도 ③테니스 모임

“운동뒤 마시는 맥주 한잔의 맛...”

70년대는 국가적으로 「잘 살아보세」라는 목표로 온국민이 앞만보고 달려왔던 시기여서인지 보통사람에겐 이렇다 할 취미라는 것도 달리 없었던 때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시대 같은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며,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체력단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매주 수요일 오후 배구를 함께 했던 몇몇 학생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유학을 가게 되었고, 86년 가장 늦게 귀국한 梁永鎭(동국대)교수의 박사취득 귀국 축하모임에서 「(마)청사테」 일명 「마음은 청년인 사회학도테니스모임」이 발족돼 강산도 변할 10여년의 오랜 세월을 지속하게 된다.

다섯째 일요일은 보너스

당시 마음을 같이 했던 金益基(동국대), 裴圭漢(국민대), 李東薰(육사)교수를 중심으로 시작된 同會는 지금까지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후2시 맨땅의 코트가 허락되는 날이면 어김없이 모였고 혹 달력이 잘 짜여져서 다섯째 일요일이 있는 달이면 보너스로 한번 더 코트에서 뿔 수 있는 기쁨을 공유하곤 했다.

同會를 찾아 들어선 지난 19일의 코



「광기」같은 열정으로 한판 승부를 끝내고.

트장의 운동모습을 보며 기자가 느낀 「청사테」는 창립초기 그 열정과 젊음의 「靑色」못지않게 더욱 짙푸른 빛깔을 띠고 있었고 이것이 바로 회원 모두가 40대 중반 이상이 되어버린 지금에도 「청사테」의 명칭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同會의 의지(?)로 화한 이유가 아닐까 추측된다. 일례로 최연장(60대 초반)이며 現 회장인 金一鐵(모교)교수의 백핸드

스트로크 및 서비스는 바로 「광광튀는 X세대」의 그것이었으며, 모임에서 실력이 다소 저조한 회원을 위해 코치를 자처하기도 한다는 李炳赫(서울시립대)교수의 「싸부(師父)」기질은 서슬퍼런 「유격조교」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을 정도였다.

모임비망록에서 꺼내 살짝 비취본 某회원의 「때묻지 않은(?)」운동후 목록

사진에는 어린애의 장난기가 역력한 회원들간의 훈훈한 우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청사테」의 특이한 점으로는 매년 2~3회 전지훈련삼아 각 회원의 직장 코트를 순회형식으로 사방 누빈다는 것인데, 창립당시 육사교원학생으로 함께 수학했던 同會 趙昌鎭장군의 초청으로 전방 某부대의 코트위에 발자국을 남기고 왔다는 말을 들었을 땐, 혹 테니스광들이 아닐까 하는 우려의 마음을 지우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운동에는 저마다 그 독특한 재미와 운치가 있기 마련으로 이런 「광기」같은 열정을 「청사테」회원들이 갖게 된 이유가 「운동뒤 함께 하는 첫 잔의 맥주맛」때문이라며, 그 상쾌한 느낌은 세상 천국이 따로 없을 정도라고 이구동성들이다.

회원들 직장코트 순회

「한번 총무는 영원한 총무」라는 회원들의 등상에 본의 아닌 장기집권(?)을 하다 지난해 1년간 영국연수를 나가며 총무직을 물려줬다는 梁교수는 모든 행사에는 장소예약, 음료준비, 참석유도, 연락등 총무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젠 이 모임을 통해 혼인에 골인한 李 健(동국대)·李賢熙박사(이대강사) 부부총무가 수고하며 훨씬 더 잘해 나가고 있다고 전한다.

이 모임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분으로는 權泰煥(모교), 洪斗承(모교 교무부처장), 李根茂(아주대)교수, 白善福박사(유네스코), 文龍浩판사(법원행정처)등이 있다. (燦)

모교소식

96학년도 입시전형 발표 대학별고사 1월12~13일

96학년도 신입생 전형 일정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입시 지원서는 12월27일부터 96년 1월5일까지 교부되며, 지원서 접수는 1월3일부터 5일까지 시행된다.

또한 대학별고사는 1월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실시되며 면접고사·실기고사를 거쳐

1월30일 이전에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한편 사범계열의 경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성적과 면접고사 성적이 각각 총 배점의 5%씩 반영되며 신체검사는 미술대학 지원자에 한해 색각이상자를 판별하는 것으로 치러진다.

공과대학

「훌륭한工大교수賞」시상



李華榮교수

식을 가졌다.

공과대학 재직 교수중 교육, 학술연구 및 산학협동연구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교수를 분야별로 1명씩 선정, 시상하는 이 賞은 공대15회 동문들이 졸업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출연한 기금을 재원으로 9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미술대학

아트인스티튜트와 교류

미술대학(학장 崔滿麟)은 지난 8일부터 25일까지 박물관 현대미술전시실에서 美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와 교수작품 교류전을 개최했다.

이번 작품 교류전에는 모교 崔學장을 비롯한 20명의 교수와 아트 인스티튜트의 14명의 교수작품 31점이 출품됐다.

이번 출품작은 회화, 조소, 공예, 산업디자인등 미술 전 분야로서 양교의 미술현황을 비교·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李章揆교수

공과대학(학장 韓松曄)은 지난 10월30일 호암교수회관에서 제4회 「훌륭한 공대교수賞」 수상자로 학술부문 화학공학과 李華榮교수, 교육부문 전기공학과 李章揆교수를 선정, 시상

鄭元植 前국무총리 등 명예교수 31명 추대

모교는 지난 29일 본관 교수회의실에서 鄭元植, 李賢宰 前국무총리등 31명을 명예교수로 추대했다.

이날 추대된 명예교수는 다음과 같다.

金榮國(정치) 李用熙(외교) 李賢宰(경제) 李 燦(지리) 金濟泌(수학) 金鎬徵(화학) 姜永善(분자생물) 金淵植(금속공학) 朴惠一(원자핵공학) 安秀

桔(전자공학) 鄭厚燮(농생물학) 朴世元(동양화) 柳景塚 文學晉(서양화) 鄭元植(교육) 申熙明(물리교육) 鄭源根(약학) 金容振(작곡) 金鎮永, 盧寬澤, 尹東浩, 金勝煜, 權彝赫(의학) 李鳴鍾, 閔丙一, 李永玉, 金東順, 金洙哲, 鮮于良國(치의학) 李榮韶, 玉鍾華(수의학)

연구소 단신

서양음악연구소 일반인 공개강좌

서양음악연구소(소장 徐友錫)는 내년부터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갖는다.

이번 공개강좌는 96년 3월부터 6월(1학기)까지, 9월부터 12월(2학기)까지 음악지도자, 일반인실기, 컴퓨터음악 등의 3과목으로 진행되며 각 학기별로 80명을 모집한다. 연락처: 880-7901

동양음악연구소 「산조연구사」발표

동양음악연구소(소장 李在淑)는 지난 15일 음대 시청각실에서 「산조 연구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黃俊淵교수의 「산조의 기본청과 보조청」 등 산조 연구사를 정리한 논문 4편이 발표됐다.

한국문화연구소 학술토론회 개최

한국문화연구소(소장 崔承

熙)는 지난 13일 호암교수회관에서 「한국 고전작품 세계 및 한말사회의 근대적 변모」를 주제로 제7회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李賢熙교수가 「한국고전의 역주와 국어국문학」을 발표했다.

독일문화연구소 초청강연회 열어

독일문화연구소(소장 安三煥)는 지난 9일 이화여대 崔成萬교수, 모교 金누리교수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崔교수는 발터 벤야민의 미메시스 이론에 대해, 金교수는 동서독 문학의 통일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언론정보연구소 언론과 권력관계 조명

언론정보연구소(소장 朴明珍)는 지난 21일 문화관 국제세미나실에서 「메디올로지, 권력, 언론」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가졌다.

(變)

金致善 前법대학장 발전기금 3천만원전달

지난 11월28일 金致善 前법대학장(송우장학재단 이사장)이 모교 李壽成총장을 방문, 4·19혁명 당시 희생된 동생 金致浩(당시 수학과 3년)씨를 기리는 뜻에서 「金致浩수학발전기금」으로 3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金이사장은 「동생이 못다 이룬 학문에의 꿈을 수학과 학생들이 대신 이뤄 주었으면 한이 없겠다」고 말했다.

모교병원

「이상운동클리닉」개설

모교 병원(원장 李迎雨)은 지난 10월25일 「이상운동클리닉」(신경과 全範錫)을 개설했다.

이 클리닉은 파킨슨씨병, 무도병, 수전증, 목이 비틀어지는 사경증, 반측안면경련증, 안검경련증 등의 환자들이 치료 대상이다. 연락처: 760-3276

미식축구팀

서울지역 우승

모교 미식축구팀(감독 李鎭濟)이 지난 10월28일 한국미식축구협회 서울지역 추계대회에서 20년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성균관대, 한양대등 서울지역 9개 대학이 참여했는데 결승전에서 서울시립대와 겨뤘 54대 6으로 승리했다.

우승과 함께 李鎭濟교수가 최우수 감독상을, 박주영(체육교육 3년)군이 최우수 선수상을, 정윤식(임산공학 4년)군이 최우수 수비선수상을 수상했다.



서울대학교 동창회 報

동창회 지표 • 참여 • 협력 • 영광

21면 드락
22면 세계의 대학
화제의 동문
23면 문화단신
'95 회보평가
24면 연회비납부자
27면 국민카드가입자

제 213호

1976. 4. 13 등록번호(서)라-137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5년 12월 1일

[21]

11월 회보를 읽고

동정을 폭넓게 실었으면...



학교를 졸업한 후로는 가까이 만나는 친구 외에는 항상 근황이 궁금하다.

그런데 매월 한번씩 배달되는 동창회보가 있어 참으로 반갑고 좋다.

한가지 아쉽다면 좀더 많은 동문들의 인사이동, 동정등이 폭넓게 실린다면 실제 만나지 않아도 그렇게 지내고를 있구나 하는 마음놓임이 있을 것 같다.

또 하나 부락한다면 학술 논문이 아닌 중요한 읽을 거리가 하나 실린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 한다.

孫宣奎(64년 行大院卒)

한국신문協 사무국장

제품의 기쁨 나누는 회보



지난달 우리는 무던히도 많은 시간을 성취를 위한 경쟁으로 살아왔다. 서울대학 입학

장을 얻고 직업에서의 성취를 위해 흘린 땀의 흔적은 주마등 같다. 이렇게해서 쌓인 우리들의 몫과 지리가 서울대학의 전통과 힘이 되었다.

선배들의 피나는 노력과 일군은 후배들에게 무거운 성취의 압력과 격려가 되었고 또한 후배들의 탁월한 재능과 성취는 선배들의 든든한 뒷받침과 자랑이었다.

이제 우리가 갖는 서울대인의 긍지와 기쁨은 각자의 것이 아닌 서울대학 전체의 것이기에 되돌려 줘야 한다. 서울대 율타리내에서만 아니라 이 사회나 국가에 베품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베품이 곧 친목의 계기가 되고 이러한 기쁨을 나눠 갖는 동창회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나눔의 공학과 베품의 미학을...
李英穗(65년 師大卒)
교수신문사 발행인



“아직도 계란을 그리세요?”

『아직도 담배를 피우세요?』 『아직도 강북에 사세요?』 『아직도 본처와 사세요?』 하는 유행어가 돌았다고 한다. 나를 만날 때 『아직도 계란을 그리세요?』 하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 계란을 그린다든가 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질문을 해오면 나는 간단히 『예』 하고 답한다.

애기 없을 때 그림배워

나와 그림애기를 하자면 한참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숙명여고 미술반에서 활약할 때, 미술을 가르쳐주신 분들이 모두 쟁쟁한 분들이셨다. 지금은 다 미술의 대가들이시니까. 그중 한 분께서 고3때 친정아버지를 찾아오셨다. 『따님을 홍대 미술과에 보내시지요』 하고 권하셨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서울대 교수이셨던 친정아버님께서는 화가의 길이 험난하다는걸 아셨던지, 가난한 대학교수라 딸을 프랑스 유학이며, 뒷바라지를 하실 형편이 못된다는 이유로 점잖게 거절을 하신 것 같다.

나는 그 후 서울사대 영어교육과에 진학했다. 졸업 후 영어를 좀 가르치기도 했다. 그 후가 문제였다. 집에선 미국유학도 보내주셨지만 별 재미를 못보았다.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지금의 남편(崔基南·56년 師大卒)과 결혼을 하게 됐다. 5년쯤 애기가 없는 동안 가끔씩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렸다. 너무나 무 유화물감 냄새가 좋았다. 어찌된 셈인지 첫 딸을 낳은 후 보름 되던 날 유화도구를 펴놓고 서툰 솜씨로 딸의 얼굴을 단숨에 그렸다. 그때 그렸던 딸이 작년에 시집을 가서 금년에 또 딸을 낳았다. 그때 그림과 똑 닮게. 그래서 그 그림을 선물로 주기로 했다.

격려해준 남편에 감사

이 말을 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애기가 태어났을 때 『여보 제가 애기를 키우려면 뜨게질도 배워 애기옷도 해입혀야 되니까 그런 학원에 다닐까요?』 하고 물었다. 그때 남편 대답이 『당신은 오히려 미술대학원에나 다니



金正淑(59년 師大卒)서양화가

지 그래?』 하고 제의를 했다. 처음엔 농담이겠거니 했다. 그 후 태도가 진지해지며 『홍대대학원에 시험쳐봐』 했다.

내게 어느 정도의 달린트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대학원 등록금도 대주고 졸업 후 개인전도 몇번씩 열어주며,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준 남편이 고맙다. 유명한 화가가 언제 될지는 몰라도 모두들 달걀 작가로 알아주시니 감사하다. 매년 미술협회전, 여류화가전, 홍익전, 구조전, 숙남전에 출품해 왔고 프랑스, 미국, 일본, 아시아 국제전 등에도 초대받으면 응하고 있다. 모교 서울사대 동문전에도 초대받은 적이 있다. 앞으로 희망이 있다면 남편의 정년퇴직을 기해 고마움의 보답으로 개인전을 또 열고 싶다. 그리고 집집이 그림 한 점씩 걸 때 계란그림도 선택되길 바란다.

중년을 아름답게 하는 길

30여명이 되는 입원병동의 책임자로 문제아와 청소년들을 만난지 10여년...

아직도 가야할 먼 길을 바라보며 소아정신과 의사로서의 한계에 답답해질 때가 있다. 가장 큰 답답함은 아이들이 퇴원후에 조금이라도 변화된 상태가 유지되고 지지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대하거나 방관하는 가정환경, 격정은 하나 어찌할 줄 모르는 부모들, 그 자신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상처로 도움이 필요한 부모들에게 돌아가 봐야 재입원이 되풀이된다.

남을 돕고 나누는 삶

1년여의 해외연수동안 가장 부러웠던 것은 그들의 사회적 지원이었다. 약물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장기기증 학교, 문제아나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직업재활 프로그램,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받는 아동들을 위한 양부모나 양가정 제도. 이런 지원들은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지원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지역사회의

기금마련(fund raising)으로 이루어진다. 기금뿐만 아니라 더 부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지원을 하는 점이다.

어느 유대인 지역사회회의 주일 특수 프로그램을 방문한 적이 있다. 유대인 장애아 부모들의 모임에 의해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일요일 오전 9시부터 3시간에 걸쳐 진행됐는데 놀라운 것은 고교생들이 고교 4년간 매주 빠짐없이 자신과 연결된 장애아를 위해 봉사한다는 점이었다. 어려서부터 나보다 못한 이들을 돕고 나누는 삶을 생활화하고 있었다.

우리모두 아래를 보자

우리의 대학입시를 앞둔 몇년간의 청소년 자신뿐 아니라 부모들의 피나는 노력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

문제는 우리가 어떤 주관적 기준보다 항상 남을 의식해 경쟁하며 이겨야 하는 상대적 압박감과 가치관속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항상 위를 본다. 최고가 돼



郭英淑(78년 醫大卒)
국립서울정신병원 소아정신과장

야한다는 강박관념속에 희생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한다. 독해지기 위해, 자신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기 위해 우리는 주위뿐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따뜻한 시선을 잃어간다.

아래를 보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여유가 생겨 정신위생에도 좋고 돕고싶은 마음도 생긴다. 내가 누린만큼 자식이 누리게 하고 싶은 소박한 욕심속에 가족이끼리주의나 계층의 세습화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이뤘고 누리고 있다.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할수록 공허하고 결핍감만 남는다. 우리의 자기애(narcissism)를 나에게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사회로 넓혀가는 노력이 중년을 아름답게 하는 길인 것 같다.



듀크대학

대부분 학과 미국대학순위 10위 안팎

막대한 기부금 덕에 「남부의 하버드」로 성장

필자가 1960년대에 유학했던 미국의 「듀크」대학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시에 소재하고 있는 명문대학이다.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우는 이 대학은 우리나라에는 별로 알려져있지 않으나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종합대학이다. 1924년 「제임스·듀크」에 의해 설립된 이 대학은 「트리니티」대학의 후신으로 그 역사는 비교적 짧으나 담배제조사업으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설립자 「듀크」가 기부한 기금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 오늘에 이르렀다.

치매클리닉은 세계적

「듀크」대학의 전신인 「트리니티」대학은 본래 「유니온」대학이라는 남지 대학으로 출발했으나 1896년부터 여학생도 입학시키면서 새로운 대학으로 재출발했다. 「듀크」가문이 기부한 거액의 기금에 힘입어 1924년 학교이름을 「듀크」로 개명한 후 「듀크」대학은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1927년 첫 신학사가 배출됐고 1929년 첫 철학박사, 1932년 첫 의학 박사학위가 각각 수여됐다. 1904년에 설립된 법과대학원은 1930년 「듀크」대학에 정식으로 편입됐으며 1969년 설립된 경영대학원은 1980년 「후쿠아」경영대학원으로 개명한 후 미국내에서 서열 8위의 명문경영대학원으로 발전했다.

「듀크」대학은 학부인 「트리니티」문리과대학, 공과대학 및 간호대학과 대학원인 법과대학원, 신학대학원, 의과대학원, 환경대학원, 경영대학원 및 일반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의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에 의하면 「듀크」대의 미국대학 순위가 학부의 경우 종합평점 6위, 의대가 4위, 법대가 8위, 경영대가 8위 등을 기록했다.

특히 의대의 안과와 치매 클리닉은 세계적으로 그 명성이 알려져 있다. 미국 감리교 교파에 속해 있는 신학대학원은 미국 최상위의 신학대학임을 자랑하고 있고 대학원의 대부분 학과가 미국대학 순위 10위안에 들고 있다.

대학의 상징 「듀크채플」

「듀크」대학의 총학생수는 1만1천명에 불과하나 교수의 수는 1천6백명을 넘고 있다. 양보다는 질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학생 정원을 근래 거의 동결시키고 있으며 입학경쟁률은 10대 1에 이른다. 1천3백만평에 이르는 방대한 부지에 세워진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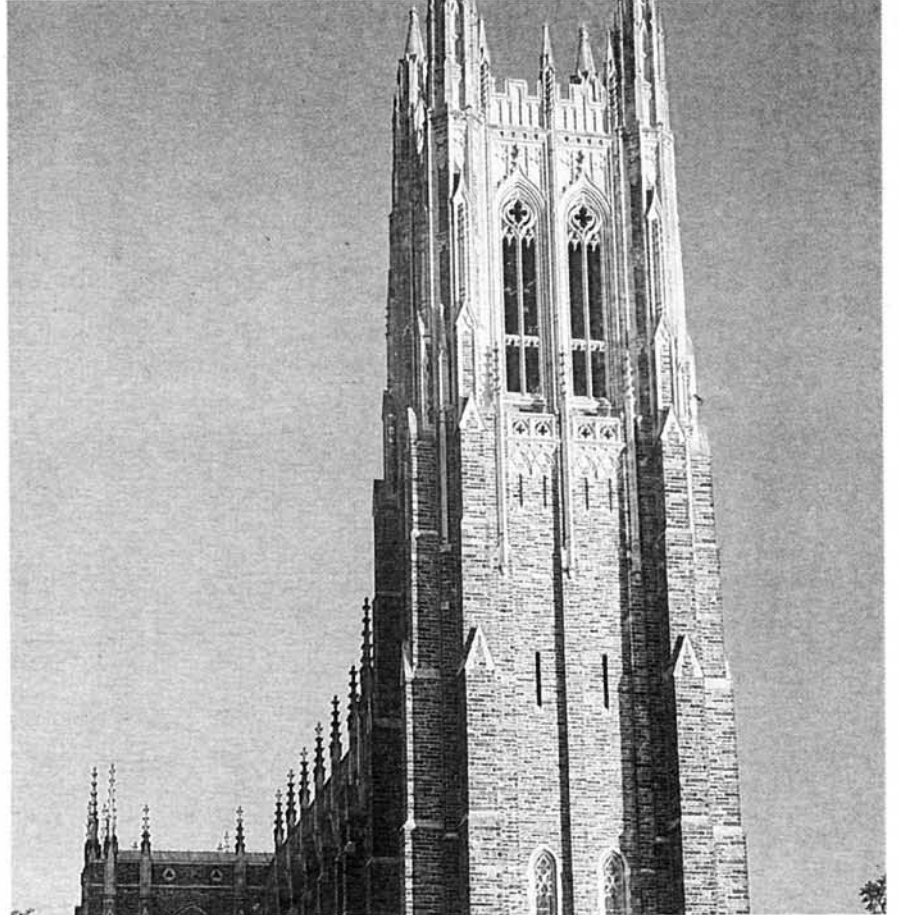
대학은 1백70동에 이르는 교육·연구동, 기숙사, 도서관 등을 갖고 있어 하나의 소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도서관 장서는 4백만권을 넘고 있으며 대학 1년 예산이 10억불(약 7천7백억원)에 육박해 하나의 거대한 재벌기업을 연상케 한다.

대학의 상징인 「듀크 채플」은 아름다운 「고딕」형의 예배당으로서 50개로 돼 있는 편종(編鐘), 77개의 유색창(有色窓), 5천개의 파이프를 돼 있는 오르간으로 특히 유명하다. 의대병원은 최신 의료장비와 연구시설을 자랑하고 있으며 대학농구팀(Blue Devils)은 1991년과 1992년의 전국 「챔피언십」 경기에서 두번이나 우승했다. 7만5천평에 달하는 「듀크」공원은 아름다운 꽃과 나무로 가득차 있어 관광객들의 내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듀크」대학은 미국 남부에 위치하고 있어 과거에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국제화」의 구호아래 외국학생과 교수에게 문호를 크게 개방하여 외국과의 학술교류를 확대시키고 있다. 한국내 이 대학 동창은 현재 1백여명에 불과하나 앞으로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盧明濤(61년 法大卒)

한국외국어대 교수



이 대학의 상징인 「듀크 채플」은 아름다운 고딕형의 예배당이다.



辛基南변호사

「사람사는 정을 심는 모임」만들어 “미혼모위한 집 마련이 최대 목표”

「아이들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품에서 자라야 합니다. 비록 편모일지거나 가난하다고 해도 해외 입양아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행복할 거라는 믿음에서 이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내년이면 창립 8주년을 맞는 「사람사는 정을 심는 모임」은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낳아 기르겠다는 미혼모들이 스스로 독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도와주는 단체다. 창립때부터 회장을 맡아 운영해온 辛基南(74년 法大卒·변호사)동문은 미혼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우리나라를 해외입양아 수출국 1위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나중에는 동네에서 물건팔기를 거부하더군요. 3번이나 집을 옮겨다녔는데 내년 목표는 그동안 모아둔 기금으로 집

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辛동문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단순히 하고 일시적인 동정심에서 도와주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에서 장애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오래가질 못해요」

辛동문은 남을 돕는 것도 생활화해야 한다면 외국인의 예를 들었다. 「봉사활동을 한 다거나 성금을 온라인으로 부치는 일 등을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고 사회참여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개인마다 한 두개 단체를 후원하고 있지요. 후원단체의 성격이나 하는 일도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의 경우 마음은 있어도 은행에 가서 돈을



부치는 일이 귀찮아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申庚林시인을 비롯해 법대 동기생 20여명이 2칸짜리 지하방을 구해 시작한 「미혼모의 집」은 규율이 매우 엄격해서 약속을 어긴 사람은 즉시 나가야 한다. 독립심을 키우는 동시에 나중 사람을 위해서 머물 수 있는 기한도 1년으로 정했다.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 산후조리가 끝나면 곧 직업을 알선해서 되도록

빠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직장도 나가 있는 동안 아이는 계속 돌봐준다.

현재 1백50여명이 후원자로, 2, 30명이 자원봉사 요원으로 애쓰고 있는데 전화 02)928-0182나 02)765-8578로 문의하면 언제든 환영이다. 이번 겨울에는 뜨거운 가슴, 냉철한 이성으로 행동하는 서울대인답게 사람사는 정을 심으려 함께 떠나보자.

(志)

문화
신문

展示

■李允姬작품전

-12월5일 공평아트센터

동양화를 전공하고 파리에서 수학한 李允姬(71년 美大卒) 동문은 그동안 수묵화에 매진해 오면서 동양고유의 정신세계를 추구해 오고 있다. 李동문은 이번 작품전이 끝난 후 14~27일 주불한국문화원에서, 96년 1월16~2월17일 파리 모던 아트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新刊

■나의 고국 우리문화

-金日勳 著



미주판 서울 대동창회보의 컬럼니스트로 활약해온 金日勳(57년 醫大卒·美내과전문)의 동문이 한.

중·일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에세이집을 펴냈다.

40여편의 기행문, 컬럼 등으로 구성된 이 책의 서두에서 金동문은 66년 미국에 건너간 뒤로 고국을 행여 잊을까봐 동양적인 것을 부지런히 읽고 배웠다고 서술하고 있다. <유니온출판사>

■한겨레(민족서사시)

-李晩相 著



李晩相(67년 經大院卒·前대영볼트대 표)동문이 8년 전 회갑기념으로 출간한 서사시를 증보하

여 -한 생명의 種으로서- 라는 부제로 3권의 책을 내놓았다. 인류사에 비취진 한겨레, 1천여회의 외침, 압도하는 외래문화에서도 한겨레의 種性이 더욱 뚜렷해지는 연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 생명력의 특색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일선출판사刊·각권 5,000원>

■결혼한 딸에게

띄우는 편지

-金初江 著



4년전 외동 딸을 출가시키고 나서 그 빈자리가 느껴질 때마다 딸을 곁에 두고 이야기하듯 하고

싶은 말들을 편지로 쓰기 시작했다는 金初江(72년 保大院卒·이화여대교수)동문. 인생의 선배로서, 여자의 길을 함께 걷는 동지로서 결혼한 딸에게 들려주는 행복의 비결과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고려원미디어刊·5,500원>

公演

■宋致京바이올린독주회

-12월18일 연강홀



충남대 교수로 재직중인 宋致京(77년 音大卒)동문의 바이올린독주회. 宋동문은 그동안 파리 오케스트라의 악장 Luc Hery 초청으로 3차례의 연수를 받은 바 있으며 6회의

독주회 및 실내악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이스턴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회

-12월19일 연세대학교 1백주년 콘서트홀



음악대학동창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李鍾一(65년 音大卒)동문이 창단1주년을 맞은 이스턴 챔버 오케스트라 기념연주에서 지휘를 맡는다. 이날 공연에는 모짜르트의 시유곡 2번, 교향곡 38번이 연주된다.

■朴羅那·趙敏廷

하프 듀오콘서트

-12월20일 문화일보홀



줄리어드 폴홀에서 6회의 독주회와 카네기 리사이틀홀에서의 뉴욕데뷔 독주회등 하프스트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朴羅那(82년 音大入)동문과 오케스트라 협연, 듀오 연주등 크고 작은 무대를 통해 탁월한 음악적 감수성과 연주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趙敏廷(89년 音大卒)동문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정리=安興變기자>

95년 회보를 평가하며

“각 단과대학(원) 소식
골고루 심도록 할 터”

-李世震사무처장(본보 편집주간)



서울대동창회보가 21만 서울대인의 대변지로 자리잡은 지 벌써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령 2백호를 맞는 경사도 있었고 저희들은 그 연료만큼 「기다려지는 회보」 「철하는 회보」 「읽혀지는 회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고 지면을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월(지령 203호)부터 전면 가로쓰기를 단행하고 紙質을 높이는등 일대 혁신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본보는 동문 여러분의 의견을 좀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동문의 소리」라는 난을 신설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보내 주신 의견에 답하는 것으로 95년도 동창회보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생각해 보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선 동창회보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레이아웃이나 컷 디자인, 활자체등이 시원해졌고 서울대인의 소식지로서 그 역할에 충실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좀더 참신한 편집과 사진의 다색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에 반하여 회보는 일간지나 잡지와 다르고 모교와 역사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틀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상반된 의견도 있었고 광고가 너무 많아 순수성이 떨어지고 상업성이 지나쳐 보일까 우려된다는 염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옛 것의 좋은 점과 새로운 것의 신선함을 제대로 조화시켜 나간다면 무리없이 해결 될 수 있으리라 보며, 후자의 경우에는 먼저 이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광고 수익은 회보 제작비의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는 95년 신년호부터 세련된 모습의 「동창회지」로 전환하려 했으나 그 제작 비용이 실로 엄청나 아직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창회보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광고를 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단과대학에 너무 치중해 대학원 출신들이 소속감을 느끼기 어렵고, 성공한 사람들만 소개할 것이 아니라 음지에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동문들도 소개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사실 각 단과대학(원)동창회는 그 활성화 정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본의 아니게 지면 할애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단과대학(원)동창회의 소식이 고루 실릴 수 있도록 좀더 배려하고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발굴하여 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가 가기전에 연회비를 납부합시다”

〈理事: 8월 14일 ~ 10월 2일 · 一般: 8월 30일 ~ 11월 3일〉

회 장 단

▲부회장 李聖秀= 50만원
▲부회장 鄭元植= 1백만원
▲부회장 鄭大哲= 50만원
▲부회장 玄在賢= 1백만원
▲감 사 李基雄= 30만원

상 임 이 사

▲朴振煥 농과대학동창회장
= 22만원
▲崔永喆 문리과대학동창회
장= 20만원
▲李信子 미술대학동창회장
= 20만원

이 사

◇人文大學

▲박종덕 78부승정밀전문

◇社會科學大學

▲김주형 78LG경제연구원
▲김호섭 78중앙대교수
▲박기종 76국무총리실
▲박호전 66(주)삼덕사장
▲이 철 88국회의원
▲이영조 77경희대교수
▲이재건 77국회사무처

◇家政大學

▲박명희 75건국대교수

◇看護大學

▲김남련 66간호대동창회
▲박명자 66석관중학교교장

◇經營大學

▲윤재봉 77삼일회계법인이사
▲이 기 78대림산업부장

◇工科大學

▲강성안 62한국포리올부사장
▲계명식 57효정개발회장
▲곽삼진 58前예천종합건축
▲구민회 61경북섬유산업협
▲구자영 58케이티전기대표
▲권형석 66두산제관대표
▲기우봉 58현대ENG고문
▲김 원 65건축환경연구소
▲김 철 66석진상호신용금고
▲김계호 58유니시스템코리아
▲김광렬 54중원전기부사장
▲김광식 59前대한석탄공사
▲김대모 66한국노동연구원
▲김동현 66명성전자공업대표
▲김삼곤 68한전기술본부장
▲김생빈 68동국대교수
▲김석수 77동서유지이사
▲김송평 68삼영산업대표
▲김수광 63이화다이아몬드
▲김연식 61한국로트고문
▲김우식 60쌍용ENG대표
▲김인기 58한국자연연구소
▲김인석 59일건종합건축소장
▲김장균 60광장건축대표
▲김재탁 61일산강철대표

▲김정식 68까치건축회장
▲김정옥 60前고속철도공단
▲김중성 67대한제분대표
▲김중해 61한국크리버대표
▲김주환 61내경ENG대표
▲김준호 64범아건축대표
▲김중렬 71한국자연연구소
▲김지덕 70럭키화재대리점
▲김찬식 63코오롱유화공장장
▲김찬욱 59이수화학공업대표
▲김창식 57오공산업회장
▲김천명 71대우통신상무
▲김태준 61희림종합건축대표
▲김태화 66삼화콘크리트공업
▲김태환 70서진통상상무
▲김학기 54삼화화성고문
▲김희수 62금성알프스전자
▲노병완 66한국인삼진흥공사
▲박금철 51한양대명예교수
▲박명옥 71(주)유공이사
▲박병찬 77진화ENG상무
▲박원근 59前LG전선대표
▲박종인 63동국화공대표
▲박철수 65한화그룹전문
▲박행일 65다우종합건축대표
▲배전운 59하이캠대표
▲백상목 64대원건영사장
▲변이석 74용마ENG상무
▲변정근 57세경전기회장
▲서임규 61우림콘크리트공업
▲선우정호 66경우구조개발
▲성낙정 54한화에너지회장
▲성재경 57남서해운대표
▲소봉영 56동아건설산업전문
▲손 옥 67삼성전자부사장
▲송철조 63한통ENG대표
▲신현국 68대한석탄공사부장
▲신현우 70(주)옥시대표
▲심세진 65대한정밀화학대표
▲안기주 67동산광업기술용역
▲안남근 74제너럴ENG이사
▲안면섭 62기은전산개발
▲안승본 66LG화재해상보험
▲안장훈 63경동인도네시아
▲안청신 67한양바스프우레탄
▲양홍준 69LG화학이사
▲오인석 62법률사무소고문
▲원정수 57인하대교수
▲원호영 63원기기술대표
▲유대희 71경방기획전략이사
▲유승근 57한국종합건축소장
▲유재소 65도화종합기술공사
▲윤 진 70삼천리기계대표
▲윤봉순 58삼화기업회장
▲윤석구 57해외석유개발협회
▲윤인우 68동양맥주전문
▲이강국 69한국알콜산업전문
▲이강우 65포스코ENG상무
▲이근호 71대제통상상무
▲이금석 64우보기술단사장
▲이기준 61서울대교수
▲이기화 57태광산업대표
▲이동한 63삼보엔트카대표
▲이민화 76메디슨대표
▲이삼일 70삼진무역상사대표
▲이상각 73코스코INT사장
▲이석규 63라미산업대표

▲이성진 69쌍용양행이사
▲이수일 67현대자동차기획실
▲이시우 71페트로코리아대표
▲이원현 64대종건영회장
▲이재명 67한국건설기술원
▲이정렬 68한올방직대표
▲이정무 72대우부장
▲이정환 48서울대명예교수
▲이종찬 59기린시스템대표
▲이지현 66대한광업진흥부장
▲이환범 62대영ENG사장
▲이희식 59대한전선이사
▲이희중 57LG산전부회장
▲임무현 65대우정밀화학대표
▲장세문 66LG건설전문
▲정경진 57종로학원원장
▲정무조 61한영산업대표
▲정성택 65거산전자실업대표
▲조사홍 62(주)백화대표
▲조영근 72前중석공업상무
▲조장래 66금강섬유상무
▲조정주 59금성정보통신
▲최 탄 66쌍용양회전문
▲최동재 74이화산업전문
▲최문남 63동우테크대표
▲최보영 59前동명기술공단
▲최원갑 60최신물산회장
▲한대립 64서진통상사장
▲한수는 59도화종합기술공사
▲홍광표 63남양세라믹대표
▲홍용표 60홍진기연대표
▲황선근 70인하대교수
▲황인호 60한기종합건축대표
▲황중구 62한일상사사장
▲황해근 60동일기술공사대표

◇農科大學

▲고재균 55서울대교수
▲곽영구 65제일화재해상보험
▲김경욱 75서울대교수
▲김윤배 66특허법률사무소장
▲김주호 59한국사료협회장
▲신동원 54충남대교수
▲신용철 43前동남보건전문대
▲안중운 73농림수산부심의관
▲양종석 73내무부기획관리실
▲오민영 55前임업연구원
▲유 황 60제일모피고문
▲윤여창 57창령원목장대표
▲윤오섭 52한국농지개발원
▲이경준 71서울대교수
▲이내수 64농협중앙회
▲이현목 68농림수산부감사관
▲임승훈 61배화여고교장
▲장정식 65서울시문화관광국
▲최은숙 65서울대교수
▲최찬식 62국토정책연구원
▲허신형 66한국소비자보호원
▲황주광 67충북대교수

◇文理科大學

▲강정문 71대흥기획상무
▲강지원 72사법연수원검사
▲고 건 60명지대총장
▲구자윤 61원강(주)부사장
▲구태회 60럭키금성그룹고문
▲김대기 69(주)유공이사

▲김문일 62삼환기업대표
▲김문진 65서울신문사전문
▲김영배 66중앙일보사부국장
▲김원호 70특허법률사무소장
▲김정남 66청와대수석비서관
▲김중협 66동덕여대총장
▲김주필 67동국대교수
▲김태환 72맥켄에릭슨상무
▲노재식 67과학기술자문위원
▲민영기 61경희대교수
▲박경석 59前국회의원
▲박광춘 62前KBS원주방송
▲박세직 60국회의원
▲박윤배 74우리자동차판매
▲방원혁 64한국방송공사
▲서광석 55前송의여전교수
▲신명범 51前부흥부과장
▲신용우 56광주송원여실전
▲안교덕 59前청와대민정비서
▲안승구 69서울시립대교수
▲양해출 59前인삼연구연구원
▲엄준걸 65세화토건부사장
▲유영설 60외환은행상무
▲유영익 60한림대교수
▲유혁인 57종합유선방송
▲윤하정 51前외무부차관
▲이광찬 62원광대교수
▲이기원 56정신문화연구원
▲이기화 63서울대교수
▲이동화 72자동차공업협회
▲이병대 65KBS스포츠국장
▲이부식 66청와대건설비서관
▲이부영 69국회의원
▲이수용 67연산건설대표
▲이수홍 59한국문화협회장
▲이연희 55대한전선공업사장
▲이영원 63세방전지전문
▲이영훈 68한국사회연구소장
▲이용일 73존슨&존슨상무
▲이우호 73문화일보제작3부
▲이정식 55서원대교수
▲이종덕 68대흥기획광고국
▲이종렬 50前장우산업대표
▲이종복 55실심당사장
▲이준희 65세기문화사국장
▲이철수 70보람은행영업부
▲이태욱 61서강대교수
▲이창주 60공인회계사
▲이해찬 72서울시부시장
▲장하구 46종로서적센터고문
▲정 훈 60대일금속대표
▲정기환 65대한전기부사장
▲정병순 62삼성투자자문대표
▲정서구 69KBS진주방송국
▲정양모 53국립중앙박물관장
▲정진태 61한려전선협력회장
▲정창기 64교통관광TV편성
▲조 은 69동국대교수
▲조성욱 56인하대교수
▲조영주 70전경플라자전문
▲조창화 62LG미디어고문
▲최각규 57광원도지사
▲최병곤 75하나銀을산지점
▲최성규 64진주무역대표
▲하영준 60前효성금속대표
▲한영우 62서울대교수
▲한우석 55前외교안보연구원

▲황경식 70서울대교수

◇美術大學

▲강은엽 63계원예대교수
▲손정리 64교원대교수
▲이시용 55L.S.Y.제판원
▲이종복 66포름디자인
▲정창섭 51서울대교수
▲조성애 68관화작가
▲최의순 67서울대교수
▲한도룡 58홍익대교수
▲황창태 70화가

◇法科大學

▲한만춘 42변호사
▲박종식 42변호사
▲강군우 72법일인쇄대표
▲강승재 61엠택코리아사장
▲강영수 70변리사
▲강용구 66변호사
▲강우영 61변호사
▲강재섭 74국회의원
▲공노명 61외무부장관
▲곽창욱 62변호사
▲권방용 64한진해운지점장
▲권지용 62지림출판사사장
▲김관수 61국민銀검사부
▲김규철 69한국방송공사
▲김기돈 67(주)범한대표
▲김기인 62前담배인삼공사
▲김대권 74변호사
▲김대성 63부천레미콘차장
▲김대식 66대우증권이사
▲김대환 65서울고법부장판사
▲김동호 61마이TV대표
▲김동훈 61서울시청
▲김두배 57한불종합금융대표
▲김명중 66前제일생명영업국
▲김문환 68감사원감사위원
▲김문희 69헌법재판소재판관
▲김병윤 72두산건설이사
▲김석기 68한호협업대표
▲김석영 55태양종합상사대표
▲김성룡 64변호사
▲김세형 66명지건설대표
▲김세훈 58평안섬유회장
▲김영근 59변호사
▲김영기 58롯데칠성음료전문
▲김영세 66초원빌딩사장
▲김영수 72장기신용은행
▲김영채 65변호사
▲김영호 57신아유리공업대표
▲김완섭 68변호사
▲김용원 64삶과 꿈 출판사
▲김인식 72변호사
▲김정수 64변호사
▲김종정 62LG화학부사장
▲김종환 72변호사
▲김진억 60변호사
▲김태경 59변호사
▲김태무 63한국전기통신공사
▲김현삼 64한일銀제주지점
▲김현산 59중앙노동위원회
▲김현태 55서울청량리역사
▲김형진 77대법원재판연구관
▲김홍재 57변호사
▲김효영 60국회의원

▲김희근 77변호사
▲남재우 63라전모방대표
▲노승길 73변호사
▲문상익 64변호사
▲문익상 62현대상선부사장
▲문현대 62백룡공업부사장
▲문희상 68국회의원
▲민병국 63변호사
▲민재영 67롯데디자인초대표
▲민형기 72서울지법부장판사
▲박병호 61변호사
▲박연철 72변호사
▲박영석 61한국제강부사장
▲박용도 61대한무역진흥공사
▲박용상 67서울고법부장판사
▲박우용 64한양화학상무
▲박우동 67변호사
▲박인수 61대검총무부장
▲박종렬 66광주지검목포지청
▲박종성 77서울지법정무부원
▲박종우 62지방재정공제회
▲박준서 64대법원대법관
▲박정석 66감사원 1국6과
▲박한철 75춘천지검속초지청
▲박효성 66대한항공전무
▲방 현 76변호사
▲백광주 69남해화학상무
▲백덕렬 71변리사
▲서 성 64대법원행정처
▲서경석 71LG회장실전무
▲서기석 77대법원재판연구관
▲서정우 65변호사
▲서정욱 69철강협회부회장
▲성영수 68장원산업대표
▲손병기 69목원대교수
▲송민호 69대전대교수
▲송종의 64대검차장검사
▲송준채 68한국금인사부
▲신갑철 60한국수출보험공사
▲신광식 62제일은행전무
▲신동수 63삼환상호신용금고
▲신정식 73변호사
▲신춘호 65외환은행수원
▲안건기 73서울시의회
▲안호호 65변호사
▲안희태 65법무사
▲양승권 65외환은행인사부
▲양영준 77변호사
▲양재택 66한일은행부장
▲양재호 75양천구구청장
▲염창현 77대양상호신용금고
▲염태환 68환은리스부장
▲오종남 75재정경제원
▲우재승 65세계자유민주연맹
▲유경희 69변호사
▲유덕택 69인천일보전무
▲유원재 62대우정보시스템
▲유재웅 63일은행권상무
▲유재인 62제일시티리스전무
▲유재철 72청운산업대표
▲윤경희 69베어링부라더스
▲윤보욱 70인하대교수
▲윤상일 77변호사
▲윤세리 76변호사
▲윤일영 65변호사
▲윤찬렬 76변호사
▲윤희한 70사법연수원교수
▲이 협 71국회의원
▲이 홍 66변호사
▲이경배 65제일화재해상보험
▲이논규 65법무사
▲이돈희 61대법원대법관
▲이동락 64대전지법법원장
▲이동명 79서울고법특별1부
▲이문호 64LG그룹사장
▲이병기 62남해화학사장

▲이보환 65변호사
▲이세작 67변호사
▲이수모 69배영의숙학원회장
▲이순태 77변호사
▲이승우 79내무부지방공무원
▲이승우 73방송통신대교수
▲이연환 61당성영업사대표
▲이영이 66대성산업
▲이용우 65서울고법부장판사
▲이우용 63동화약품대표
▲이원태 67前대호건설부회장
▲이윤승 73의정부지원판사
▲이정환 64한일銀行홍동지점
▲이종상 68제일경영건설팀
▲이종일 61한국법제연구원
▲이창수 67새마을중앙연수원
▲이창원 60한국단자공업대표
▲이철호 63LG그룹전무
▲이태희 64변호사
▲이현재 66증권관리위원회
▲이환규 60국민카드부사장
▲이휘영 67LG클럽고문
▲임동진 66변호사
▲임영민 68LG정보통신상무
▲임종훈 77국제사무처심의관
▲장상재 69경찰위원회위원장
▲장성환 74장백농산대표
▲장수길 64변호사
▲장일세 64제일銀광명지점
▲장재형 76변호사
▲장주일 69오성인터내셔널
▲전병덕 61변호사
▲전수철 67선진자동차공업
▲전순호 64포스탈대표
▲정극수 69변호사
▲정상화 60변호사
▲정옥균 62前범양화학대표
▲정인규 67현대중합공업회장
▲정인섭 77서울대교수
▲정희준 61송호정학회회장
▲조문현 77변호사
▲조성일 65협신상호신용금고
▲조수봉 65변호사
▲조왕하 75동양투자금융사장
▲조정만 60양지화원대표
▲조지연 64신한상호신용금고
▲조찬형 62변호사
▲조해남 65대구시장
▲조형일 73H.I무역대표
▲지원훈 65예술의 전당감사
▲차원태 74변호사
▲채희경 63(주)삼미대표
▲천현주 71한일銀行외도지점
▲최광률 68변호사
▲최대용 69한전부사장
▲최만립 64대한마이크로전자
▲최상룡 66범양식품상무
▲최석정 65한일고속대표
▲최승민 63변호사
▲한광수 69법무연수원
▲한명석 66서울동방관광회장
▲한유동 61고요한소리사무국
▲허 항 60변호사
▲홍명선 69前대법원총무국장
▲홍병의 64변리사
▲홍석곤 65삼부토건차장
▲홍성계 64춘천지검감찰지청
▲홍성길 66포림산업대표
▲홍성우 61변호사
▲홍인기 60증권거래소이사장
▲황선협 63한국銀行남지점
▲황성재 76대구지법경주지원
▲황의표 65월간세라믹스고문
▲황인철 64조흥증권전무
▲황철수 65변호사
▲황활웅 72서울시경경무부장

◇師範大學

▲권상철 65안양전문대학재단
▲강영삼 63국민대교수
▲강하구 72동아일보기획실
▲고준식 65당곡중학교교장
▲공구영 68청량고등학교교장
▲김경수 69천호중학교교장
▲김광수 66둔내중고등학교교장
▲김낙승 69前청운중학교교장
▲김덕순 63명일여고교장
▲김명운 71상명여대교수
▲김삼기 69문화방송심의국
▲김성곤 63前전주여고교장
▲김영봉 61수유여중교장
▲김정완 67심원고등학교교장
▲노갑기 70명은상사대표
▲도남희 62노나미의상실대표
▲배호순 74서울여대교수
▲송문섭 66서울대교수
▲신용래 66사대동창회
▲신철지 65교육부교원정책과
▲심명호 68서울대교수
▲심상학 67해외투자정보센터
▲양교석 68중부교육청계장
▲어명하 63통일연수원
▲우경자 65인하대교수
▲윤필희 66당곡고등학교교장
▲이관형 67서울고대교수
▲이성목 71서울대교수
▲이영로 65前이화여대교수
▲이종면 60서울과학교육원장
▲전용근 73국방과학연구소
▲정찬모 70단국대교수
▲조길준 60서울과학고교장
▲조용복 60서울사대부속중
▲최영상 61대우중공업부사장

◇商科大學

▲강경수 61삼성화재보험고문
▲강남언 62공인회계사
▲강문창 68동산건설부사장
▲강중흥 66한국은행이사
▲고병우 6697유니버시아드
▲곽건영 67공인회계사
▲구석모 63한국경제연구원
▲권희택 60안동버스사장
▲금창대 63한국개발리스감사
▲김기석 63오양수산대표
▲김두산 63한국유리전무
▲김명준 69장기신용銀상무
▲김상렬 68외환銀行초지점장
▲김석곤 67근로복지공사감사
▲김석규 67한일리스대표
▲김성두 62세방전지대표
▲김성주 61진솔에너지회장
▲김영석 66前대한국보사장
▲김윤기 65한진해운전무
▲김재운 66신한종합연구소
▲김정수 75세미냉장전무
▲김정은 66前오라관광고문
▲김종국 67전북부안터미널
▲김종대 75한국전산원
▲김준경 64동양맥주대표
▲김태범 65공인회계사
▲김현배 67한미리스사장
▲김홍은 64전방(주)대표
▲김희중 71경향신문사편집국
▲남원일 74前대우증권상무
▲박강홍 65대우조선이사
▲박건호 63쌍용중공업상무
▲박병윤 63서울경제신문이사
▲박병호 68한국기업리스
▲박상은 61한국리스금융협회
▲박용서 61삼성석유화학
▲박창만 70한국개발리스

▲박종아 66공인회계사
▲박희준 67모터로라반도체
▲배정운 63한국철강신문사장
▲배철호 73재정경제원과장
▲백 철 61부원상사대표
▲서영교 66안진건설대표
▲소재수 64향진기획대표
▲손정삼 69동아창업투자회장
▲송세현 64국민銀行동지점장
▲송재복 67한화기계대표
▲신기범 67前미즈비시은행
▲신동재 69교보산업회장
▲신동혁 63한일은행전무
▲신명식 63코리안테스팅센터
▲심대평 66충남지사
▲심상은 64제일銀종합기획부
▲안기봉 62삼표상사대표
▲안명길 65동아창립투자사장
▲양성진 67동국무역부사장
▲오덕균 67엑스포재단이사장
▲오창규 66한국IBM대표
▲우두현 67삼일산업사장
▲원국희 67신영증권회장
▲원무현 61효성물산대표
▲유명집 69유신교역회장
▲유장희 63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영흥 62기호산업대표
▲이광수 64한국산업銀行이사장
▲이기용 68경방총무부이사
▲이대원 65삼성항공대표
▲이민우 62호신물산전무
▲이병국 65한길종합금융대표
▲이송은 67공인회계사
▲이순신 63해창양복점대표
▲이용구 63한비산업대표
▲이원교 67한국교회사연구소
▲이종기 61삼성화재보험
▲이진설 61안동대교수
▲이철희 61관세사
▲이태형 63수자원공사사장
▲이한웅 68신협조합중앙회장
▲이흥주 65국민銀行당동지점
▲임조흥 64동서증권감사
▲장기팔 62한일증권사장
▲장병수 67현대투자자문전무
▲전완식 66신신상호신용금고
▲전용수 66인하대교수
▲전장원 60경남기업전무
▲정상진 67현양상사회장
▲정영기 60前대양금속
▲정용익 63한일은행이사
▲정재경 67동영흥산대표
▲정종득 65벽산대표
▲정진우 65삼양정수공업전무
▲제환석 74코오롱상사상무
▲조 석 65선일포도당고문
▲조택영 65현대투자자문대표
▲지환영 68오성INT대표
▲진 건 64진이섬유대표
▲최경남 66(주)쌍인대표
▲최구관 67前상은시스템
▲최규익 63대한컴퓨터부사장
▲최명걸 60삼신올스테이트
▲최성두 69현대문화신문상무
▲최운렬 74서강대교수
▲최재준 66한국은행성남지점
▲최종원 69현대해상보험감사
▲최진석 62한국가스공사고문
▲최충식 62송실대교수
▲탁갑균 65동성교역상무
▲홍성인 60대창흥업부사장
▲홍은기 68동양증권회장
▲황낙주 65국회의장

◇獸醫科大學

▲고봉흠 61국립동물검역소

▲김성수 68대창동물병원장
▲김진구 67성일약품대표
▲민순기 72서울우유진료과장
▲신광순 66서울대교수
▲안석길 65순흥동물병원장
▲이병익 78남전물산공장장
▲장동선 62디에스산업대표
▲최윤석 66(주)상림 수의사

◇藥學大學

▲공남식 60신당약국
▲김 식 72세종약국
▲김금림 66환인제약부사장
▲김길수 65이화여대교수
▲김상문 66창생약국
▲김상수 65상수약국
▲김원보 67평안약국
▲김정호 67우전교역대표
▲김태욱 71현대백화점약국
▲김희중 63신영약국
▲문은기 73승효약국
▲박정규 64상아약품공업전무
▲박종길 75대웅릴리이사
▲서석수 63前부산대학원장
▲엄용진 72대호약국
▲오연준 60효진물산대표
▲우재성 73검단약국
▲이계준 68서울대교수
▲이흥래 65삼보약국
▲이흥주 65삼희약품부사장
▲임항빈 69금양약국
▲전용동 67유종당약국
▲정순간 62삼진제약전무
▲정원근 69前서울대교수
▲조남주 65송전약국
▲조철원 63신강약국
▲주춘대 68반도제약전무
▲허 용 67삼일제약회장

◇音樂大學

▲김명희 65한국성악회이사
▲윤해중 65前한양대교수
▲이상만 61새사람선교회
▲이종국 65교원대교수

◇醫科大學

▲강용섭 76소아과의원장
▲고일환 65상계백병원부장
▲권진균 67현대전자부속병원
▲김근우 67강남병원장
▲김도진 64내과의원장
▲김동은 68정형외과의원장
▲김영균 69동아제약상임고문
▲김영룡 65백병원부장
▲김영민 62서울대교수
▲김용식 71서울대교수
▲김 윤 66충남대병원장
▲김주한 78한양대교수
▲김태운 69소아과의원장
▲김해룡 68산부인과의원장
▲김홍균 69대한병원장
▲김홍기 64前인천중앙길병원
▲동영송 65동의과의원장
▲박동건 77신경정신과의원장
▲박상철 73서울대교수
▲박신규 69의학신보회장
▲박승무 74윤내과의원장
▲박영하 65을지병원회장
▲박용재 71박내과의원장
▲박재갑 73서울대교수
▲박정범 69산부인과의원장
▲박정환 69고한성심의원장
▲변준호 75한국보훈병원내과
▲서상준 68도티병원산부인과
▲손춘호 63광보의원부원장
▲송만준 67송만준의원장

▲송영명⁷³소아과의원장
▲송원식⁷⁵송의과의원장
▲송인경⁶⁹도티병원내과과장
▲신창식⁷⁶이로마벨피부과
▲심달섭⁶¹前대한임상의학회
▲심재식⁷³보훈병원산부인과
▲염규현⁶⁰강북제일의원
▲오성희⁷⁶한양대교수
▲왕영중⁶⁰계동의원장
▲우종인⁷²서울대교수
▲원필호⁶¹미죽의원장
▲유재희⁷⁰경기간호전문대
▲유정희⁷⁸서울을지병원
▲윤재일⁷²서울대교수
▲이강훈⁷⁸내과의원장
▲이규덕⁷²소아과의원장
▲이근식⁶⁴내과의원장
▲이명철⁷³서울대교수
▲이문호⁴⁶아산의료재단
▲이상문⁷¹소아과의원장
▲이영근⁶³前대전을지병원
▲이영철⁶⁶외과의원장
▲이영호⁴⁵이비인후과의원장
▲이용진⁶⁰자신의원장
▲이의돈⁶⁷원자력병원과장
▲이인수⁴⁸前대전중앙병원
▲이중근⁷⁴가야병원내과과장
▲임광세⁴⁷한국자동차보험
▲임종윤⁷²강동성심병원내과
▲장상호⁷⁷산부인과의원장
▲장세우⁶³前광주인하의원
▲조광현⁷⁷서울대교수
▲조보연⁷¹서울대교수
▲조수철⁷³서울대교수
▲조영희⁶²조신경의과의원장
▲조환규⁶⁰대한임상의학회
▲주근원⁴³한국자동차보험
▲최석구⁷⁷백병원내과과장
▲최성배⁶¹서울대교수
▲최홍돈⁷⁹백산신경정신과
▲하재동⁶⁷재동의원장
▲홍성화⁷⁰경희대교수
▲홍영수⁷³신경정신과의원장
▲홍영식⁶⁷홍소아과의원장
▲황규갑⁷⁷서울소아과의원장

◇ 齒科大學

▲강영작⁷³강영작치과의원장
▲김경원⁷⁶김경원치과의원장
▲김병찬⁷⁵김병찬치과의원장
▲김영기⁵⁸김영기치과의원장
▲김의배⁵⁶황해치과의원장
▲김재근⁵⁸김재근치과의원장
▲박영백⁶⁹요셉치과의원장
▲박필규⁷⁴박필규치과의원장
▲백성기⁷⁹백성기치과의원장
▲백순지⁶⁹백순지치과의원장
▲상경환⁷⁶상치과의원장
▲안병근⁶⁸한강성심병원과장
▲안승호⁶⁸안승호치과의원장
▲우형식⁶⁵우치과의원장
▲윤창현⁵⁹윤치과의원장
▲이만섭⁶¹경희대교수
▲이상철⁶¹경희대교수
▲이수백⁷³이수백치과의원장
▲이수종⁶⁷이수종치과의원장
▲이신행⁶⁷이치과의원장
▲이인규⁷⁴이인규치과의원장
▲이재윤⁶²덕영치과의원장
▲이현재⁶⁰이현재치과의원장
▲이형규⁶¹이형규치과의원장
▲이후성⁶⁷이후성치과의원장
▲장복실⁶¹민음치과의원장
▲전태국⁵⁹전태국치과의원장
▲정상훈⁷⁷성모치과의원장
▲조유동⁵⁹신한치과의원장

▲조 일⁵⁴조일치과의원장
▲조행작⁷⁰조행작치과의원장
▲주용섭⁷⁶주치과의원장
▲최경명⁶⁹최경명치과의원장
▲최순덕⁶⁰동화치과의원장
▲최재대⁷²국회의사당의무실
▲최희섭⁵⁹최신치과의원장
▲한남수⁶⁷한남수치과의원장
▲황의강⁶⁷황의강치과의원장

◇ 經營大學院

▲김영대⁷⁰대성산업대표
▲마우호⁶⁹녹십자의료공업
▲박운병⁷³한국은행인천지점
▲배무환⁶⁸관동대교수
▲변중석⁶⁸한국산업은행부장
▲유진성⁶⁷오성코퍼레이션
▲전도진⁷²대양제지부사장

◇ 敎育大學院

▲송향섭⁶⁶철도전문대학
▲정용술⁶⁸서울교원연수원장

◇ 保健大學院

▲구성희⁶⁹서울보건전문대
▲김영일⁷⁴유한화학상무
▲김홍식⁶²현대치과의원장
▲문옥륜⁶⁹서울대교수
▲송경섭⁷¹국립의료원부장
▲신석우⁶⁷국립의료원약국장
▲여현태⁶⁷새강의원장
▲이명숙⁷⁷대한산업보건협회
▲임재은⁶²서울대교수
▲장주호⁶⁷명진의원장
▲한홍율⁶⁹서울대교수

◇ 司法大學院

▲김창식⁶⁹변호사
▲신웅식⁶⁶변호사
▲이기영⁶⁹변호사
▲이홍균⁶³변호사
▲최병국⁷⁰대검공안부장

◇ 行政大學院

▲강병천⁷³(주)석천대표
▲권문용⁷⁰강남구청장
▲김영배⁷⁰한국공업표준협회
▲박영삼⁶⁷교통안전진흥공단
▲성낙승⁷¹한국방송광고공사
▲전주식⁶⁴국가안보회의
▲차유배⁶¹대덕산업대표
▲최계순⁶⁵반포산업대표
▲최운지⁶⁴국회의원

◇ 環境大學院

▲류원규⁷⁵한국도로공사감사
▲박춘배⁷⁹동광주택산업대표
▲이재익⁷⁷도화종합기술공사
▲이판석⁷⁴前농촌진흥청

일 반

◇ 人文大學

▲강병국⁶² ▲공경희⁶⁷
▲공영화⁷⁹ ▲김성수⁶²
▲김성호⁷⁸ ▲김세윤⁶⁶
▲문운순⁶⁹ ▲배은실⁶²
▲오영식⁶³ ▲이광용⁶⁵
▲이동환⁶⁸ ▲이숙희⁶⁴
▲임승웅⁷⁶ ▲조해영⁶⁸

◇ 社會科學大學

▲구본성⁶⁹ ▲권용수⁶²
▲김갑동⁶⁹ ▲김부성⁷⁷
▲김성섭⁶⁵ ▲김종민⁶⁹

▲김현수⁶⁶ ▲김희남⁶²
▲노규덕⁶⁶ ▲류병호⁶⁹
▲문승현⁶⁷ ▲박정원⁶³
▲손종원⁶⁵ ▲오동현⁶⁷
▲오문석⁶⁵ ▲왕윤중⁶⁵
▲유규현⁶⁸ ▲유서욱⁶⁷
▲유시량⁶⁰ ▲이 석⁶⁶
▲이근태⁶⁹ ▲이근승⁶⁹
▲이천립⁶¹ ▲이기형⁶⁸
▲임 철⁷⁸ ▲이춘아⁶²
▲정기봉⁷⁹ ▲임성만⁶⁵
▲조용기⁶⁸ ▲정대조⁶²
▲최창원⁶⁹ ▲최원석⁶⁶
▲한창호⁶⁹ ▲최효종⁶⁷

◇ 自然科學大學

▲김신원⁶⁶ ▲김혁주⁶²
▲노상석⁶⁶ ▲박운경⁶⁷
▲손병기⁷⁸ ▲신권수⁶³
▲안계수⁷⁸ ▲오영훈⁶⁸
▲이상철⁶⁸ ▲이종민⁶⁸
▲전병기⁶⁷ ▲정경원⁶⁹
▲최완성⁷⁹ ▲채동호⁶¹
▲하남규⁶⁵ ▲홍장희⁶⁷

◇ 家政大學

▲고은숙⁶⁶ ▲김광옥⁷³
▲김복희⁶³ ▲김영숙⁷⁷
▲김정희⁷⁴ ▲노은숙⁶⁷
▲박란정⁶⁰ ▲박성희⁷³
▲원명심⁷⁹ ▲이근영⁷⁷
▲이신영⁶⁶ ▲정순자⁷⁴
▲조혜자⁶⁴ ▲이태호⁴²

◇ 看護大學

▲홍여신⁶⁴

◇ 經營大學

▲김 훈⁷⁹ ▲김성효⁶⁶
▲김영봉⁶⁸ ▲김윤수⁶⁵
▲김재규⁶⁰ ▲김태현⁶⁹
▲남영태⁶⁹ ▲신동환⁶²
▲이대찬⁶⁶ ▲이성은⁶⁹
▲이종근⁷⁸ ▲이지환⁶⁹
▲이태영⁶⁵ ▲이현태⁶⁵
▲전우영⁶¹ ▲정용길⁶⁰
▲조수봉⁶⁴ ▲최재후⁶⁰
▲최형석⁶⁷ ▲한경옥⁶⁹
▲황선건⁶⁸

◇ 工科大學

▲신지수⁴⁵ ▲신기조⁴³
▲한갑호⁴¹ ▲백사익⁴²
▲허병구⁴² ▲김승근⁴⁹
▲강경태⁶⁸ ▲강구선⁶⁷
▲강귀복⁷⁸ ▲강민제⁶²
▲강학순⁶⁹ ▲고성훈⁶⁹
▲고영희⁶¹ ▲고준수⁶⁸
▲곽병현⁷¹ ▲곽희로⁶⁷
▲구자운⁷⁵ ▲권순식⁶⁶
▲권용석⁶⁹ ▲권이록⁵⁰
▲김 신⁷⁸ ▲김경덕⁶³
▲김경석⁶² ▲김관석⁷⁸
▲김기남⁷⁷ ▲김남석⁶⁰
▲김덕수⁶⁵ ▲김동진⁷³
▲김득수⁷⁶ ▲김명린⁶⁵
▲김명석⁶³ ▲김병제⁶⁶
▲김삼남⁶⁸ ▲김상돈⁶¹
▲김성득⁷⁰ ▲김성섭⁷⁹
▲김성찬⁶⁰ ▲김수남⁶⁸
▲김수남⁷⁵ ▲김안순⁶⁸
▲김연수⁶² ▲김영동⁶²
▲김영도⁷¹ ▲김운회⁷³
▲김원만⁶³ ▲김윤수⁷⁹
▲김인구⁶³ ▲김인명⁶²

▲김장년⁷⁰ ▲김재창⁶⁹
▲김창규⁶² ▲김충락⁷⁸
▲김풍오⁷² ▲김현원⁷⁵
▲김현우⁶⁶ ▲김호동⁶¹
▲나우천⁶² ▲남시도⁶³
▲류시웅⁶⁸ ▲문경섭⁶⁶
▲민만기⁶⁷ ▲민재호⁵⁸
▲박병완⁶² ▲박성오⁶³
▲박용남⁶⁵ ▲박이운⁷²
▲박익민⁷⁶ ▲박준민⁶³
▲박창룡⁷⁰ ▲박태권⁶⁹
▲박현철⁷⁴ ▲박화규⁶¹
▲박희명⁶⁸ ▲방극렬⁶⁴
▲방선기⁷⁴ ▲변동필⁷⁹
▲변형직⁵¹ ▲변희경⁶⁷
▲서동수⁷³ ▲서진우⁶⁴
▲선우범⁶⁷ ▲손경업⁶⁹
▲손광우⁶⁵ ▲손석원⁷³
▲손승래⁶³ ▲송완근⁶⁸
▲신국범⁶⁶ ▲신근식⁷⁰
▲신정철⁶² ▲심홍섭⁷⁵
▲심익섭⁶¹ ▲심일보⁷⁷
▲양종화⁷⁷ ▲오세기⁶⁹
▲오철호⁶⁶ ▲원종욱⁷³
▲유상신⁶⁴ ▲유선경⁶⁹
▲유옥종⁶¹ ▲유종욱⁶⁷
▲유중호⁶⁷ ▲유호섭⁶⁹
▲윤병양⁶⁶ ▲윤수원⁵⁷
▲윤승중⁶⁰ ▲윤태식⁶⁴
▲이건채⁶⁵ ▲이경환⁷⁰
▲이교상⁷⁰ ▲이규봉⁷⁸
▲이규설⁶³ ▲이규인⁶⁵
▲이근배⁶² ▲이기호⁷⁷
▲이남식⁷⁰ ▲이동수⁶⁶
▲이박일⁷⁰ ▲이범익⁶⁸
▲이봉오⁶² ▲이상종⁶⁴
▲이서형⁶⁸ ▲이승률⁶¹
▲이영근⁷⁶ ▲이영준⁶⁷
▲이영택⁶⁴ ▲이우진⁶⁹
▲이운형⁶⁹ ▲이인희⁶⁶
▲이일신⁵² ▲이일환⁶⁰
▲이장욱⁶⁶ ▲이재풍⁷³
▲이정국⁶⁶ ▲이정상⁵⁷
▲이종렬⁶⁴ ▲이종태⁶¹
▲이준혁⁶⁹ ▲이종호⁶²
▲이창배⁵⁸ ▲이창욱⁷⁶
▲이태승⁶⁹ ▲이현식⁶⁸
▲이희달⁷⁷ ▲이희성⁷⁸
▲임배수⁷¹ ▲임형택⁶¹
▲장세일⁶³ ▲장주필⁶⁶
▲장현갑⁷³ ▲전배혁⁶¹
▲전보현⁷⁶ ▲전창선⁶⁴
▲정건식⁵⁹ ▲정구필⁶⁹
▲정규대⁶⁷ ▲정봉주⁶⁶
▲정영훈⁷⁰ ▲정종호⁶⁷
▲정택원⁷⁹ ▲전하복⁶⁷
▲조규홍⁷¹ ▲조용준⁶⁰
▲조종삼⁵⁸ ▲조창한⁵⁹
▲주길돈⁵⁸ ▲지태환⁶⁷
▲차성환⁷² ▲차장욱⁶⁵
▲최득수⁶² ▲최영택⁷²
▲최원호⁷⁶ ▲최재웅⁶⁹
▲최태진⁶³ ▲최해천⁶⁵
▲최형욱⁶² ▲한 엽⁶⁵
▲한규택⁷⁷ ▲한성진⁷⁹
▲한영진⁶³ ▲한원우⁷⁵
▲허 중⁶² ▲허흥기⁶⁹
▲현진우⁶⁵ ▲홍순곤⁵⁶
▲황 현⁷⁶ ▲황용우⁶⁷

◇ 農科大學

▲심종섭⁴¹ ▲이승규³³
▲한규상⁴⁷ ▲한태우⁴⁹
▲강광희⁶³ ▲강대건⁶¹
▲강대경⁶⁶ ▲강우상⁷¹
▲강정모⁶⁹ ▲고일웅⁶⁵

▲고중환⁷⁶ ▲권상필⁷¹
▲김갑규⁷² ▲김경미⁶⁸
▲김경수⁵⁵ ▲김공래⁶⁶
▲김동윤⁶² ▲김병만⁷⁹
▲김성하⁶³ ▲김영옥⁶⁸
▲김옥태⁶⁵ ▲김완기⁶⁹
▲김우택⁶⁶ ▲김운태⁶⁰
▲김인성⁶² ▲김장섭⁶⁸
▲김재운⁷⁵ ▲김재철⁶¹
▲김정환⁶⁶ ▲김주형⁷³
▲김진옥⁶⁶ ▲김철근⁶⁶
▲김희창⁶² ▲나해관⁶⁸
▲문무철⁶⁰ ▲박경호⁷²
▲박명근⁶² ▲박의호⁷⁷
▲박장렬⁶⁷ ▲박진구⁶⁴
▲박진홍⁶⁹ ▲박찬규⁶¹
▲박철수⁶⁹ ▲성배영⁶⁶
▲송현숙⁷⁷ ▲신재인⁶²
▲안희철⁷² ▲용환운⁶¹
▲유영신⁶⁸ ▲유원석⁶⁵
▲유지풍⁶⁹ ▲윤재호⁷³
▲이남국⁷⁴ ▲이동구⁷³
▲이동현⁶⁶ ▲이용환⁶⁴
▲이재문⁶⁵ ▲이정명⁶⁴
▲이태호⁷⁸ ▲이현정⁷¹
▲이홍래⁵⁰ ▲임병구⁶⁶
▲장희우⁶⁶ ▲정기선⁷⁹
▲정연석⁶⁵ ▲정태성⁷¹
▲조 풍⁶⁵ ▲조상래⁶⁶
▲조철희⁷⁷ ▲최영국⁶⁹
▲최영규⁶⁹ ▲최재혁⁶⁶
▲최춘수⁶⁹ ▲하영주⁶⁷
▲하철경⁶¹ ▲하현철⁶⁸
▲한관석⁶⁸ ▲허길행⁷²
▲현승길⁶⁹ ▲홍성각⁶⁴
▲홍종진⁶⁴ ▲황국웅⁶³
▲황세성⁷⁰

◇ 文理科大學

▲우형규⁶⁸ ▲강세원⁶⁰
▲강신성⁶⁹ ▲강인구⁶³
▲고두영⁷⁰ ▲고성광⁶⁷
▲공대식⁶⁰ ▲권동숙⁶⁶
▲권일중⁶⁷ ▲권태승⁶⁰
▲김덕렬⁶⁵ ▲김동욱⁶⁸
▲김 승⁶⁵ ▲김상무⁶⁰
▲김순복⁶³ ▲김연숙⁷²
▲김영훈⁵⁸ ▲김옥선⁶⁶
▲김윤식⁶⁰ ▲김재부⁷²
▲김정택⁶⁰ ▲김정훈⁶⁶
▲김준영⁶⁶ ▲김중웅⁶³
▲김춘추⁶¹ ▲김태동⁶⁶
▲김태승⁶⁸ ▲김관우⁴⁹
▲김현석⁶⁹ ▲김형일⁵⁸
▲김형태⁶³ ▲김호정⁶⁷
▲김희자⁶⁷ ▲남궁연⁶⁶
▲남창우⁶¹ ▲노현희⁶²
▲문명호⁶⁴ ▲문영모⁶⁶
▲문희화⁶⁰ ▲박계주⁶⁰
▲박광철⁶¹ ▲박선부⁶⁴
▲박성수⁶⁹ ▲박용수⁶²
▲박우석⁷⁰ ▲박종만⁷³
▲박종세⁶⁶ ▲박종영⁶⁵
▲배효일⁷¹ ▲신행철⁶¹
▲심영호⁶³ ▲안교환⁶¹
▲안석주⁶⁷ ▲양승영⁶³
▲양훈본⁶⁴ ▲엄규진⁴⁸
▲오수국⁷⁴ ▲오택환⁶⁵
▲우삼택⁷² ▲우성규⁷⁰
▲원용문⁶⁶ ▲윤갑병⁴⁸
▲윤홍근⁶⁷ ▲이경구⁴⁸
▲이금세⁶³ ▲이민성⁵⁸
▲이민용⁴⁹ ▲이병형⁷¹
▲이상근⁶⁹ ▲이상흙⁵⁸
▲이서항⁷³ ▲이세영⁵⁸
▲이용우⁷⁰ ▲이우석⁵⁷

▲이우영⁵⁷ ▲이우철⁷⁴
▲이유대⁶² ▲이인건⁶³
▲이정두⁶⁵ ▲이정수⁶³
▲이화래⁶⁶ ▲이형기⁶²
▲인치택⁶⁰ ▲임기록⁶⁹
▲임정섭⁶⁴ ▲임창근⁶³
▲장두환⁶⁵ ▲장연호⁶¹
▲장은홍⁶⁶ ▲장정행⁶⁷
▲장화순⁵⁹ ▲전경수⁷¹
▲전도윤⁶⁹ ▲전익우⁶⁴
▲정 해⁶⁰ ▲정문규⁵⁴
▲정운용⁷¹ ▲정찬용⁵⁹
▲조병창⁶⁷ ▲조원홍⁷³
▲조학수⁷⁶ ▲주명훈⁶⁵
▲최 홍⁷⁴ ▲최병두⁵⁸
▲하영진⁵⁷ ▲하이영⁵³
▲하호민⁶² ▲한영환⁶⁰
▲한우근⁵⁵ ▲황인광⁶⁷
▲황홍환⁶⁰

◇ 美術大學

▲계동훈⁶³ ▲김경애⁷²
▲김미령⁷⁶ ▲김진경⁶⁶
▲김춘이⁶⁵ ▲노숙자⁶⁶
▲문기선⁶¹ ▲박성완⁶²
▲변광현⁶² ▲서도호⁶⁵
▲신석필⁶³ ▲안보선⁷³
▲우진순⁷¹ ▲윤미혜⁶⁰
▲이봉숙⁶⁷ ▲이성화⁷⁰
▲이승희⁶³ ▲이은심⁶²
▲이환범⁷⁷ ▲정석원⁶³
▲정선화⁶⁰ ▲최성배⁶⁸
▲최숙경⁶³ ▲최열자⁶⁶
▲홍순무⁵⁸

◇ 法科大學

▲김병규³⁷ ▲경수근⁶³
▲권영국⁷² ▲권형준⁷¹
▲김경찬⁶⁰ ▲김경한⁶⁶
▲김규식⁵⁸ ▲김기완⁶⁴
▲김동식⁷⁰ ▲김삼국⁶¹
▲김영찬⁶¹ ▲김영훈⁶⁷
▲김윤기⁷⁹ ▲김일천⁶⁹
▲김주화⁷⁷ ▲김평남⁶⁵
▲김학수⁵¹ ▲김 훈⁶⁶
▲나경식⁶⁵ ▲남 승⁶⁴
▲도재성⁷⁰ ▲문원주⁶⁰
▲문창규⁴⁷ ▲문택상⁶⁴
▲박 찬⁷⁰ ▲박갑식⁶⁸
▲박국홍⁶⁵ ▲박영철⁶⁶
▲박주선⁷⁴ ▲박주은⁴⁷
▲박형서⁵⁸ ▲방동춘⁶⁷
▲방영민⁶² ▲백세현⁶⁷
▲변영훈⁶¹ ▲서동우⁶⁵
▲석동현⁶³ ▲손지호⁶⁷
▲송충섭⁵⁸ ▲신용도⁶³
▲신완수⁵⁹ ▲신진민⁶⁴
▲안병찬⁶⁵ ▲안상돈⁶³
▲안창수⁵⁷ ▲양동신⁷²
▲염동신⁶⁹ ▲오강근⁶⁸
▲오정돈⁶³ ▲오형환⁶⁹
▲우 진⁶⁴ ▲유 옥⁶⁶
▲유기준⁶² ▲유재성⁶⁴
▲윤성근⁶² ▲윤태방⁶⁴
▲윤호일⁶⁵ ▲이경우⁶³
▲이규원⁶⁷ ▲이규완⁶¹
▲이근후⁷⁶ ▲이기환⁶⁰
▲이남진⁶⁴ ▲이동복⁶³
▲이동록⁶³ ▲이상룡⁷¹
▲이성재⁴⁸ ▲이재관⁷⁵
▲이종록⁶⁸ ▲이태일⁶⁸
▲이현구⁶¹ ▲임철홍⁶⁷
▲장석민⁶¹ ▲정갑주⁷⁷
▲정남희⁶⁷ ▲정성명⁷²
▲정진섭⁶⁴ ▲조용구⁷⁹
▲조우현⁶⁰ ▲조인하⁶¹

▲조재선70 ▲조형숙51
▲천기홍66 ▲천대승56
▲최기태63 ▲최수만66
▲최순용85 ▲최연택60
▲최영홍76 ▲최종립60
▲한범수84 ▲한병운62
▲한상희62 ▲한용석61
▲허무정75 ▲현규호57
▲홍정희72 ▲홍종각66
▲황규연86 ▲황선태70
▲황희주64

◇**사범대학**

▲김년태69 ▲김상렬39
▲김월득34 ▲정용해35
▲조효성32 ▲한진수32
▲권영인36 ▲김봉용36
▲김영숙41 ▲김종욱39
▲성하길40 ▲엄옥금39
▲진순례37 ▲강상배61
▲강철용76 ▲강희동79
▲곽형기75 ▲구영주76
▲권오승76 ▲권태원67
▲김 아52 ▲김남규56
▲김덕기61 ▲김명해59
▲김병애70 ▲김보현56
▲김상구64 ▲김상대60
▲김상현70 ▲김영지72
▲김영철56 ▲김용복61
▲김원규79 ▲김응만52
▲김재홍70 ▲김중호66
▲김지은74 ▲김진탁65
▲김진후78 ▲김철진75
▲김학기50 ▲김학찬69
▲나병삼68 ▲노희방77
▲당현숙65 ▲문정대57
▲문관담60 ▲민무일69
▲박경희76 ▲박기렬58
▲박노빈69 ▲박민하78
▲박병래64 ▲박영배74
▲박용현67 ▲박재용88
▲박종대66 ▲박종서61
▲박종수64 ▲박종욱57
▲박창만69 ▲방재근66
▲배도식61 ▲배상식67
▲변우성77 ▲성기훈75
▲손수일55 ▲송복주57
▲신문수74 ▲신흥균64
▲심상범64 ▲심재철85
▲오성환77 ▲우근룡69
▲우인섭51 ▲육완진61
▲윤병태60 ▲윤일성72
▲윤혜정77 ▲윤홍중61
▲이경창54 ▲이달덕74
▲이덕환57 ▲이민호57
▲이봉삼61 ▲이석주60
▲이석호64 ▲이수형64
▲이시혁60 ▲이영백62
▲이영빈68 ▲이오봉70
▲이용훈62 ▲이인수58
▲이정석65 ▲이희자64
▲임동규74 ▲임수오84
▲임억규57 ▲전명수51
▲전영란89 ▲전정순87
▲정계순59 ▲정상박59
▲정상호67 ▲정수웅67
▲정용길81 ▲정우상57
▲정재현60 ▲정정현56
▲정태규76 ▲정평림61
▲조항덕78 ▲주덕중60
▲차양로64 ▲채영자65
▲최광일79 ▲최귀록89
▲최근무52 ▲최병호61
▲최상호61 ▲최예중69
▲추병수88 ▲한경옥63
▲함오연74 ▲현순영49
▲홍순관63 ▲황기연62

▲**황중복70**◇**상과대학**

▲이태호42 ▲이병세49
▲강신수61 ▲강신용62
▲구영보73 ▲권성우69
▲권영조65 ▲김 옥65
▲김동휘48 ▲김사홍62
▲김상남70 ▲김석환68
▲김영수57 ▲김용균69
▲김은수55 ▲김종남64
▲김종석63 ▲김태웅66
▲김환식72 ▲노창승65
▲박홍제75 ▲변병주66
▲변원욱55 ▲서연호56
▲서의철67 ▲설성복69
▲성기호64 ▲손명환65
▲송유건69 ▲신연호72
▲신용구57 ▲신직성57
▲신찬수61 ▲신희창58
▲심재윤71 ▲심창순64
▲연영규58 ▲오정현58
▲우홍식51 ▲유관필63
▲유돈규65 ▲유병규58
▲윤용석64 ▲윤한상64
▲이경모56 ▲이계연64
▲이계혁73 ▲이광호65
▲이규양57 ▲이병선57
▲이봉식55 ▲이연형59
▲이영조63 ▲이정기65
▲이희성69 ▲임영식64
▲임영철67 ▲임종기50
▲장재기68 ▲장태영49
▲정태민56 ▲조성종71
▲조영수62 ▲조일현52
▲지창수59 ▲진운구75
▲전남립66 ▲최도성74
▲최병진74 ▲최복렬56
▲최처락58 ▲하동우74
▲한성신71 ▲홍계화70
▲홍동욱71 ▲홍충수74
▲황영주65

◇**수의대학**

▲김남홍64 ▲김영정55
▲김종택76 ▲김주성58
▲김태화61 ▲김현대57
▲박근하80 ▲서정환54
▲석호봉67 ▲성백권73
▲심정근64 ▲여현수59
▲유승창70 ▲이원섭74
▲정 특66 ▲조광영58
▲주찬용67 ▲홍병석55
▲황인학58

◇**약학대학**

▲안종락42 ▲전우방61
▲손동하49 ▲이현순50
▲조규형49 ▲공영주63
▲김경숙59 ▲김대렬57
▲김득구52 ▲김민경89
▲김성래57 ▲김성오81
▲김양숙88 ▲김우영71
▲김충호76 ▲문창기58
▲박상목76 ▲백승원65
▲백인기68 ▲손경석79
▲심규장74 ▲오병민55
▲우소동65 ▲유재렬57
▲이명결68 ▲이인순74
▲장정태82 ▲정구충80
▲정만익51 ▲정문상70
▲조병태67 ▲조지웅59
▲최경명76 ▲최진영68
▲한병훈66 ▲한성은59
▲한진호63 ▲홍기석67

◇**음악대학**

▲강려진88 ▲강신자60
▲김기은89 ▲김난희73
▲김소함77 ▲김연경89
▲김영목81 ▲김원경67
▲김정택74 ▲김행춘55
▲김현숙78 ▲문명자68
▲박근정87 ▲박정애69
▲박희덕81 ▲성석태75
▲신정숙68 ▲안희정89
▲엄의경85 ▲이명진84
▲이병조55 ▲이종일65
▲이관준72 ▲장성덕64
▲장정자54 ▲전성환72
▲정복주70 ▲조성근71
▲최미자69 ▲최희순69
▲홍종진72 ▲황준연72

◇**의과대학**

▲신하규31 ▲한천석41
▲변선규46 ▲유재훈47
▲주진순47 ▲김기곤57
▲김기희69 ▲김내준53
▲김연수88 ▲김용섭84
▲김을지68 ▲김정순60
▲김종원85 ▲김종정62
▲김희진80 ▲남주현75
▲문명선58 ▲박계순87
▲박용범88 ▲박혁동65
▲박현준65 ▲사영환61
▲손영인55 ▲송기수77
▲신용문69 ▲신준우84
▲신현덕77 ▲안병현73
▲안종호89 ▲오동진82
▲옥홍남60 ▲우경선81
▲원영천80 ▲유 현89
▲유광선75 ▲이 희75
▲이도훈86 ▲이병훈82
▲이수일75 ▲이용일60
▲이윤재59 ▲이창진78
▲이철호79 ▲임홍철75
▲장기흥66 ▲장춘자66
▲전경호59 ▲전광준69
▲정승기76 ▲정태산59
▲조성욱67 ▲최명자73
▲최형석56 ▲하종원65
▲허준평77

◇**치과대학**

▲김병환50 ▲김용선47
▲이준기50 ▲정낙현60
▲정옥균51 ▲곽영진80
▲곽현희74 ▲권기홍84
▲권순배86 ▲권영희87
▲김공배62 ▲김광남74
▲김우성68 ▲김재완86
▲김정일76 ▲김종문66
▲김희정89 ▲남일우62
▲남태우84 ▲문성훈76
▲박경호85 ▲박기호61
▲박명규57 ▲방수남68
▲백선호79 ▲백승동84
▲설창환73 ▲신현규84
▲윤태석59 ▲이기승60
▲이민영62 ▲이성근77
▲이승연67 ▲이원균61
▲이재명69 ▲이정섭65
▲이종호58 ▲전용구66
▲정치영62 ▲정평구62
▲정희태64 ▲조 웅67
▲차혜영67 ▲한경섭61
▲허종규64 ▲황세일68

◇**대학원**

▲강영길75 ▲공선표84
▲권덕주61 ▲김승호78

▲김홍소77 ▲박영순67
▲유병완85 ▲유철호77
▲이남기76 ▲이용웅69
▲이창수86 ▲정원박81
▲최종수77 ▲표내숙87
▲한우근48 ▲한정현81
▲한정호82

◇**경영대학원**

▲김연식72 ▲김정웅77
▲박부원70 ▲전유명71

▲정동준71 ▲조한욱70
◇**보건대학원**
▲송선대72 ▲윤인희82
▲이경연73 ▲정경모72
▲최상순73

◇**신문대학원**

▲김기덕72 ▲김민남78

◇**행정대학원**

▲강정희88 ▲김정렬82
▲성낙합85 ▲소중영64
▲신성섭89 ▲윤건영76
▲이동우71 ▲이충길73

◇**환경대학원**

▲김길동87 ▲이상연88
▲정순오80 ▲정영선75
▲홍성표76

서울대총동창회 국민카드



金炫植(56년 商大卒)
동아출판사 부회장



尹世榮(61년 法大卒)
서울방송회장



徐敏錫(66년 工大卒)
동일방직 회장



章相敦(67년 工大卒)
바로크가구 사장

동창회 재정확충을 위해 본회가 94년 9월부터 실시해온 「총동창회 국민 신용카드」사업이 동문 여러분의 참여로 최근 개인 1만3백여매, 법인 2백매 발급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동문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면을 통해 카드발급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회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발급기간: 10월 1일 ~ 31일〉

법 인

◇화성산업(주) 李弘中
(71년 工大卒)=10좌
◇성보실업(주) 尹在天
(72년 文理大卒)=1좌

개 인

◇**사회과학대학**

▲박경필88

◇**경영대학**

▲김영모83 ▲오재인80

◇**공학대학**

▲곽태현73 ▲김태중80
▲김현원75 ▲박근룡88
▲박주환71 ▲배동환73
▲염희택49

◇**농과대학**

▲성명제72 ▲이현수64

◇**문리과대학**

▲김인배68 ▲박원구70
▲홍중호66

◇**미술대학**

▲오숙례78 ▲채응준86

◇**법과대학**

▲강대형72 ▲권기호56
▲장 권59 ▲최병주82
▲한정환87

◇**사범대학**

▲서형래76 ▲신용국59
▲유영선85

◇**상과대학**

▲김두만63 ▲이관우74
▲이해욱63 ▲탁갑균75
▲한병무65

◇**수의과대학**

▲김영춘58

◇**약학대학**

▲이정자64

◇**음악대학**

▲김광희72

◇**의과대학**

▲이명근74 ▲김성심63
▲정경태69

◇**치과대학**

▲김종훈73 ▲서석균71
▲이명도82

◇**대학원**

▲손성호78

◇**환경대학원**

▲장기화75